

발간등록번호

2024-가족서비스-005호

2024
가족정책
공동
심포지엄

저출생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일시 2024. 10. 18.(금) 14:00~16:30

장소 서울가족플라자 B1층 다목적홀



Program

프로그램

개회사 및 축사

사회 : 이소영 아나운서

14:00~14:15	환영사	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
	축사	서울시 여성가족실 실장	김선순
	인사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서울연구원장	오 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장	송혜림 울산대학교 교수
한국가족정책학회 회장	진미정 서울대학교 교수		

14:15~14:20 기념촬영

세션1

주제발표 '서울의 현황'

14:20~14:50	2024 서울가족서비스 하이라이트 : 탄생응원 서울	서울시가족센터	이재림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서울 부모의 인식	한국가족정책학회	이윤주 국민대학교 교수

세션2

주제발표 '서울의 가족정책'

14:50~15:45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1차 성과평가	서울연구원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서울시가족센터 아버지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세션3

토론

좌장

고선주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대표

15:45~16:25	'한국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서울 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운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1차 성과평가 및 지수개발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소장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6:25~16:30 폐회

환영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작년에 이어 “2024 저출생 시대, 서울형 가족정책”이라는 주제로 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와 함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깊은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형태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가족정책과 가족서비스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저출생 현상을 가족 관점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논의하는 만큼, 저출생 대응 가족정책과 가족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서울 시민의 요구와 정서에 부합하는 가족정책 및 가족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서울이 모든 가족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서울의 가족정책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활발한 토론과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족센터장 홍우정 드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발표자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 공동 주관 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저출생 대응, 양성평등, 가족, 아동, 영유아 돌봄 등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정책 사업과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서울시정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 과제 발굴, 영유아 및 아동 돌봄 체계 강화, 여성의 디지털 역량 지원 등 많은 사업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뿐 아니라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울연구원, 그리고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와 한국가족정책학회가 함께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과 가족정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 협력으로 서울시 가족정책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시정으로 추진될 방안이 도출되고, 서울시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학계로 확산되어 보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서울시 정책에 의견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질 발표와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의견 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 가는 서울시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저출생 대응, 가족 정책 사업과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드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오균입니다. 오늘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맞아 서울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양육자 종합 지원대책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로 발전시켰습니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예비 양육자의 결혼, 임신, 출산까지 지원하는 전방위적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생 대책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근거 기반의 정책 실행과 평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분석해서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이 작년에 20개의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올해부터 1차 성과평가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은 앞으로도 근거 기반 정책 평가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서울시 정책이 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처럼 서울시 유관기관, 학회, 현장,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유익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장 오 균 드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을 공동주관하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회장 송혜림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5개 기관이 함께 하는 공동심포지엄을 통해 가족정책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면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6년에 설립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는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가족정책 활성화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취하기 위해 가족정책과 현장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와 관련되어 돌봄과 가사노동, 일생활균형, 남성의 가족역할과 양성평등한 역할분담, 가족친화사회 문화조성 그리고 가족센터의 기능 등에 주목하면서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면서 외연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년 2023 공동심포지엄은 가족정책과 관련된 연구주제 선정, 교육의 방향 모색 그리고 실천활동의 지평 확장 등에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도 학회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을 기대합니다. 저출생시대 가족정책과 관련된 현안과 인식, 정책과제 그리고 프로그램 등 심포지엄의 결과를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면서 가족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슈를 도출하고 연구와 교육, 실천을 중심으로 학회의 향후 과제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동심포지엄의 기획과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서울시가족센터 그리고 함께 참여한 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가족정책학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번 공동심포지엄이 다양한 가족의 행복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회장 송혜림 드림

안녕하십니까?

‘저출생’은 어느새 우리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진단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현재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미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가 고스란히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회적으로 함께 우리 삶과 가족을 되돌아보고 돌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지자체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서울시의 저출생정책과 가족정책은 선도적입니다. 생애 단계별로 촘촘하고 포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노력 덕분에 ‘양육행복도시’라는 목표와 정체성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는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그리고 저희 한국가족정책학회가 올해도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습니다. 모든 기관이 힘을 합쳐 이 행사를 준비했지만, 특히 서울시가족센터의 리더십 덕분에 심포지엄이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은 누구나 원한다면 가족을 이루고, 가족과 함께 평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한국가족정책학회는 가족정책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에게 최신 연구결과와 정보를 전달하는 학술적, 실천적 역할을 하기 위해 만 들어진 학문공동체입니다. 오늘 공동심포지엄을 계기로 서울 가족정책의 발전 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족정책학회장 진미정 드림

Contents

목차

세션1

주제발표 '서울의 현황'

- 2024 서울가족서비스 하이라이트 : 탄생응원 서울 3
서울시가족센터 / 이재림 서울대학교 교수
- 한국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서울 부모의 인식 21
한국가족정책학회 / 이윤주 국민대학교 교수

세션2

주제발표 '서울의 가족정책'

-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1차 성과평가 31
서울연구원 /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 43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서울시가족센터 아버지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사례 61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세션3

토론

- '한국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서울 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77
이운경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1차 성과평가 및 지수개발 81
안현미 /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소장
-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85
김소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4 서울가족서비스 하이라이트

: 탄생응원 서울



서울시가족센터
이재림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시가족센터

2024 서울가족서베이 하이라이트: 탄생응원 서울



책임연구원 | 이재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손서희 (숙명여대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보조연구원 | 신하은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이지훈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석사)
강주현 (숙명여대 가족학과 석사과정)
김민식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2024 가족정책 공동연구사업 지원센터, 서울형 가족정책

2024 서울가족서베이

- **조사대상** 20-64세(1960-2004년생) 서울시 거주자
- **표집방법** 인구비례 할당표집: 성별 X 연령별 X 거주권역별
- **조사방법** 패널을 이용한 모바일 또는 웹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2024. 7. 8. - 7. 14.
- **조사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
- **표본크기** 1,574명

* 표집방법, 조사방법, 조사업체는 2018년부터 7년간 동일

서울가족보고서 Since 2015

2024
서울가족보고서
12월 예정



3

2024 서울가족보고서 목차

<p>1장 탄생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됨 의향 및 이유 · 부모됨에 대한 인식 ·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및 이유 ·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쟁점 	<p>4장 가족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가족 · 전반적 가족관계 · 가족서비스 이용 · 미래지향적 가족정책: 방향 및 쟁점
<p>2장 부모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 지원 정책: 방향 및 쟁점 ·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부모로서의 경험 	<p>5장 청년응원 [2024 특별기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애 및 연인관계 · 결혼의향 및 결혼에 대한 태도 ·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청년의 태도 · 청년의 웰빙 및 부모자녀관계
<p>3장 부부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생활 및 부부관계 · 부부의 가사 및 돌봄 분담 · 결혼에 대한 태도 	<p>부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 서울가족 현황 · 2015-2023 서울가족보고서 · 서울지역 가족센터 현황

I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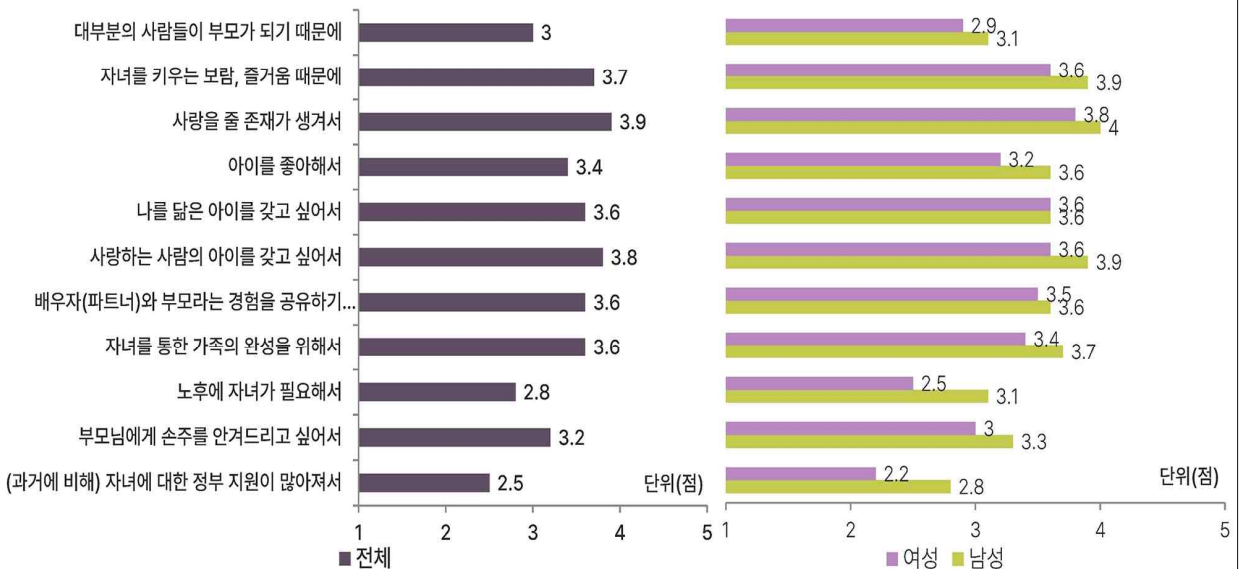
-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이 언젠가 부모가 될 의향은 '보통'과 '대체로 있다'의 사이 / 여성 < 남성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884명)

I 부모됨 의향이 "있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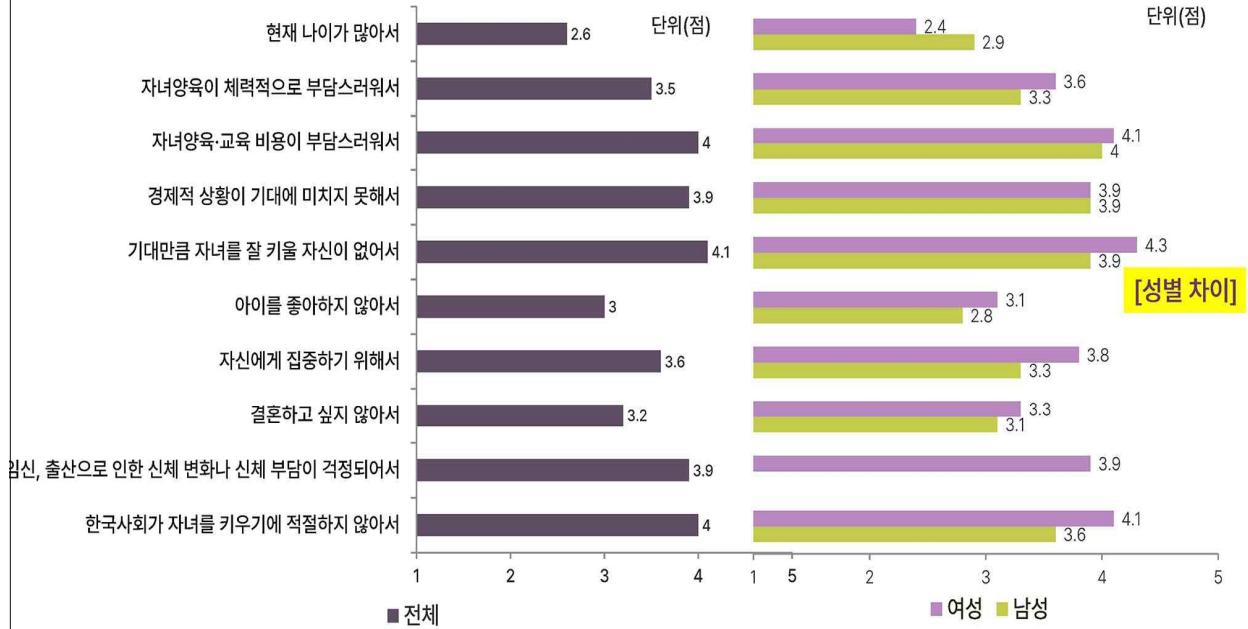
- 부모됨 의향이 있는 이유는 성별로 응답 양상 비슷 / 남성이 제시된 진술에 더 동의하는 경향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부모됨 의향이 '보통이다', '대체로 있다', '많이 있다'이고 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247명, 남성 324명)

부모됨 의향이 "없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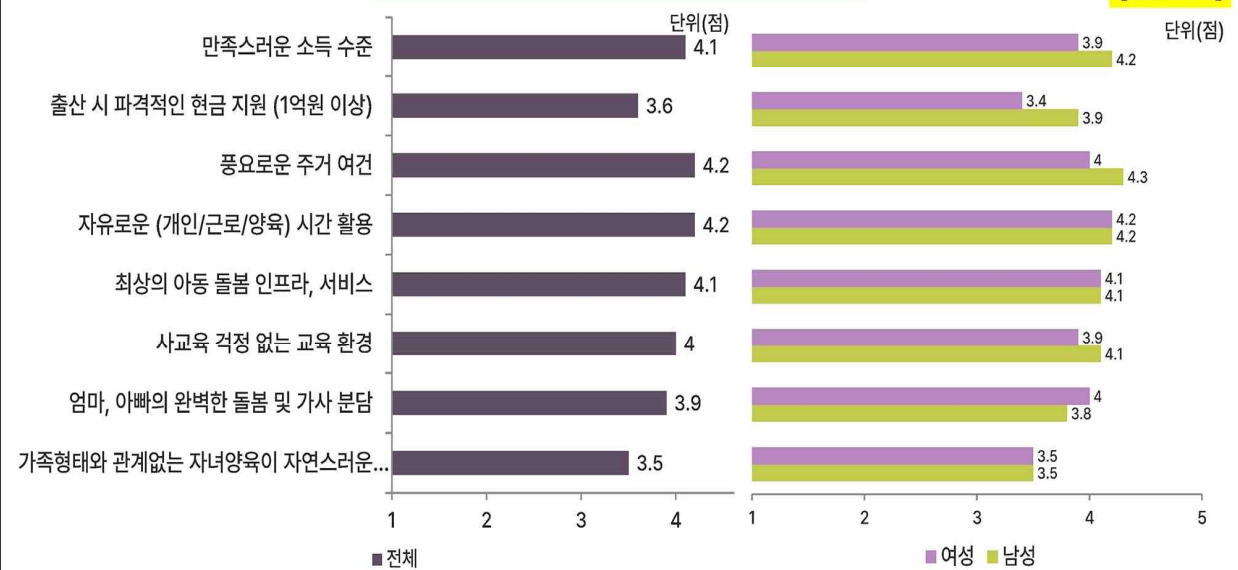
주: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항목은 결혼한 적 없는 여성 213명, 남성 118명,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는 여성 244명의 응답



자료: 2024 서울가족서비스(자녀가 없는 비혼(미혼)자 또는 무자녀 부부인 20-49세 응답자 중 부모됨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인 여성 244명, 남성 140명)

이상적인 여건과 부모됨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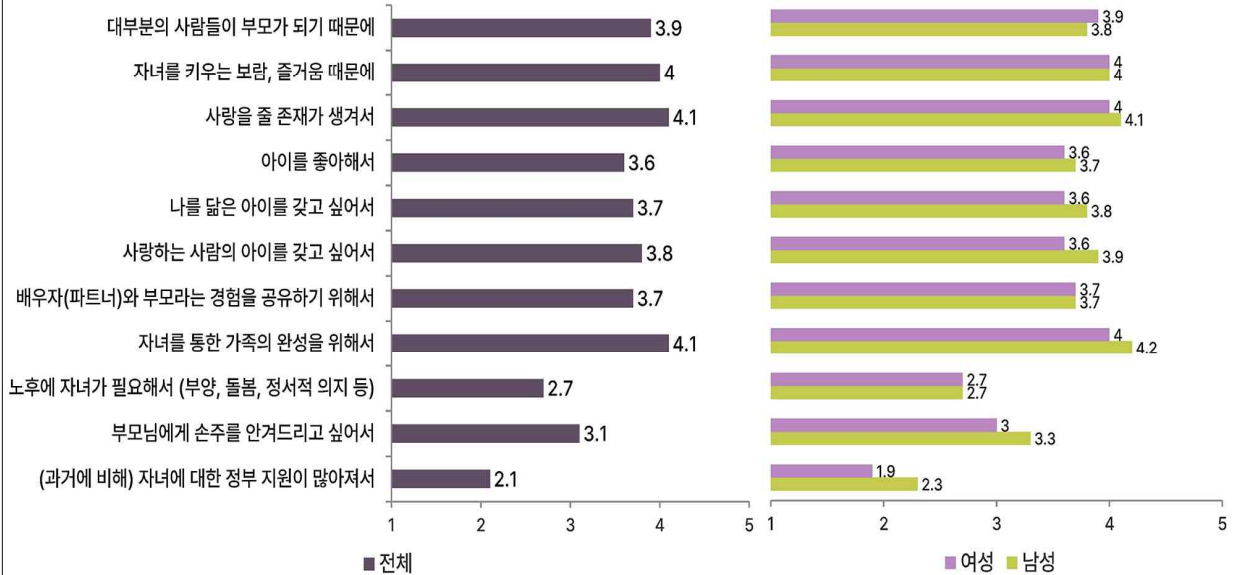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이상적인 여건이 마련된다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의향이 얼마나 생길 것 같습니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비스(자녀가 없는 20-49세 응답자 776명)

부모가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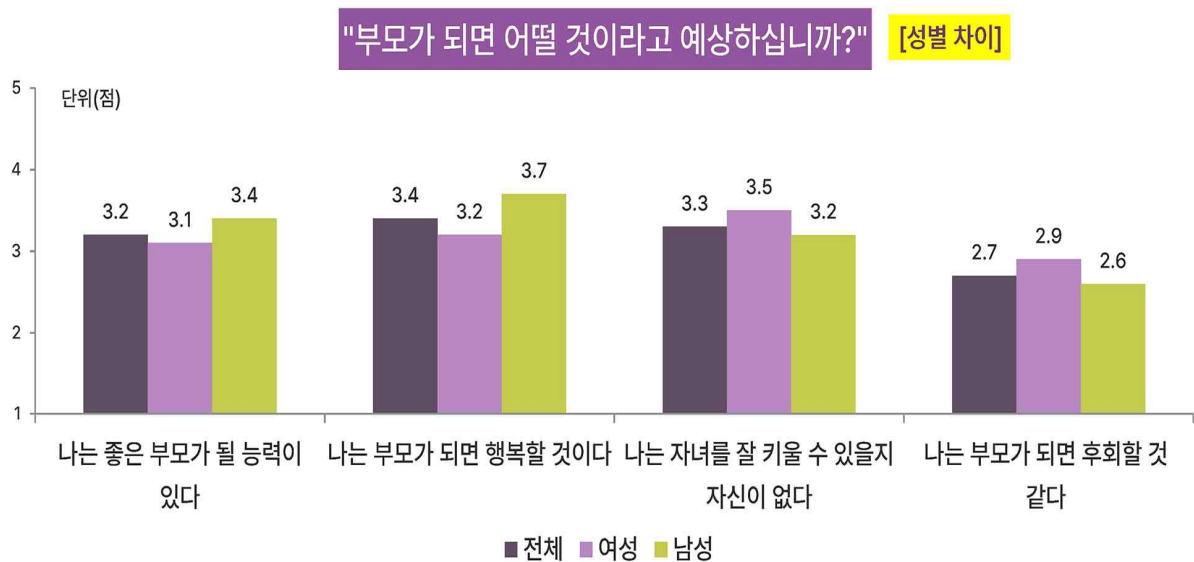
● 부모가 된 이유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 / 남성의 동의 수준이 약간 더 높은 경향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있는 응답자 690명; '자녀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아져서' 항목은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생 자녀가 있는 여성 91명, 남성 113명의 응답임)

부모됨 경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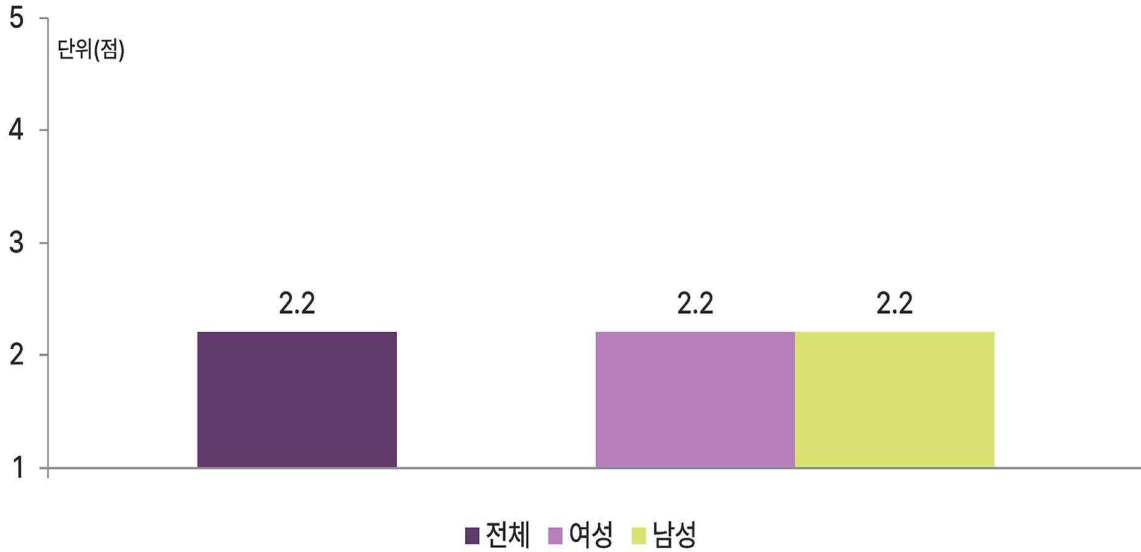
●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양육효능감을 낮게 인식하고 부모됨 경험에 대해 부정적 전망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없는 20-49세 여성 402명, 남성 374명)

I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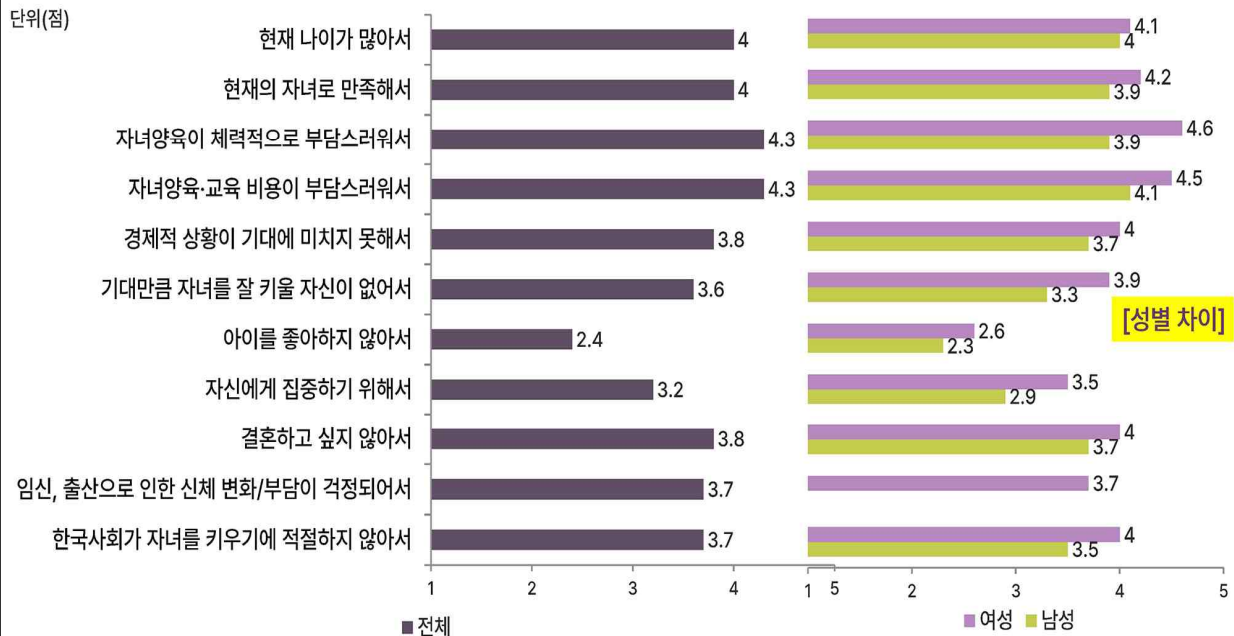
●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자료: 2024 서울가족서비스(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응답자 132명 - 여성 60명, 남성 72명의 응답임)

I 둘째 자녀 가질 의향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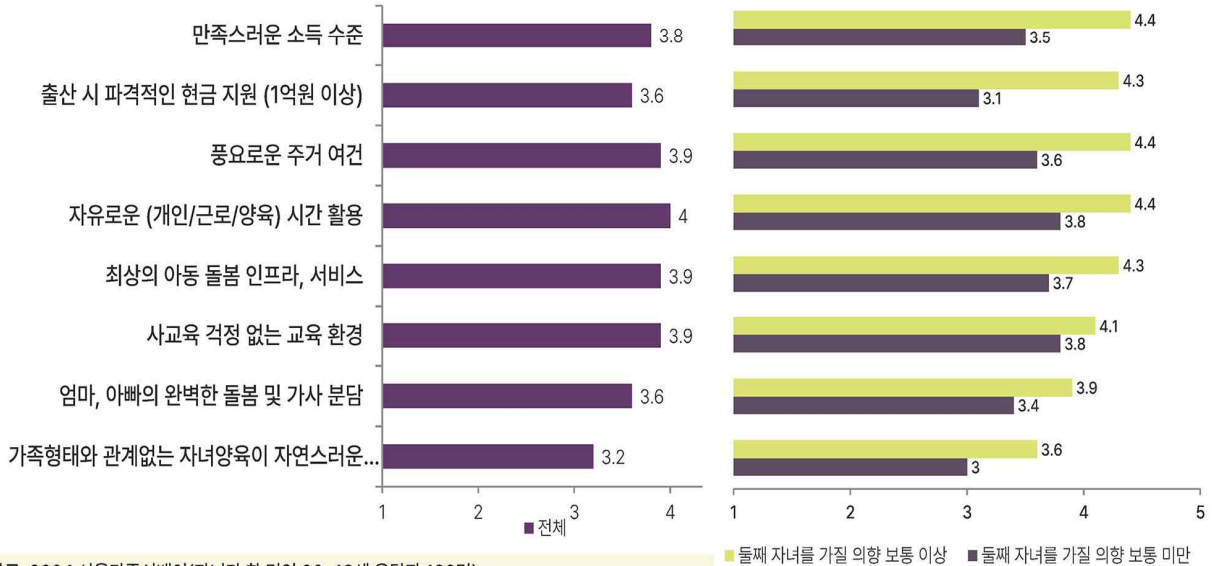
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신체 변화나 신체 부담이 걱정되어서' 항목은 여성 46명의 응답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비스(자녀가 한 명이고 언젠가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이다'인 20-49세 여성 46명, 남성 5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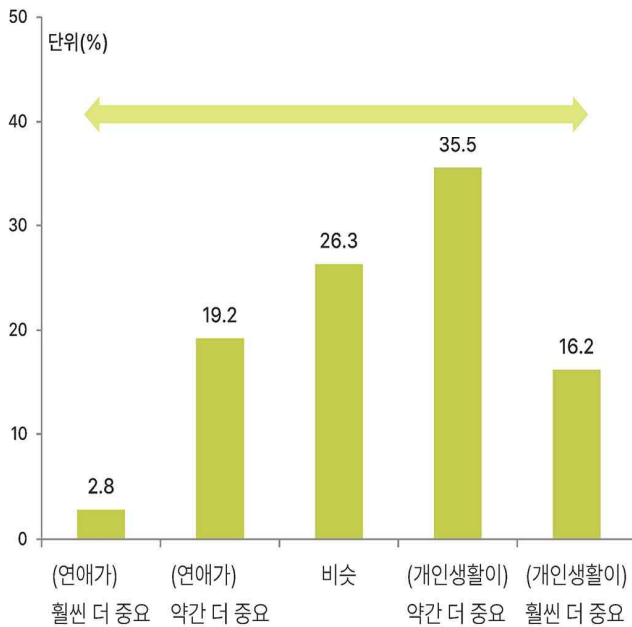
I 이상적 여건과 둘째 자녀 가질 의향

- 파격적인 현금 지원, 소득 수준 향상이 둘째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는 집단의 의향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의향이 없는 집단에서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자녀가 한 명인 20-49세 응답자 132명)

I 연애 vs. 개인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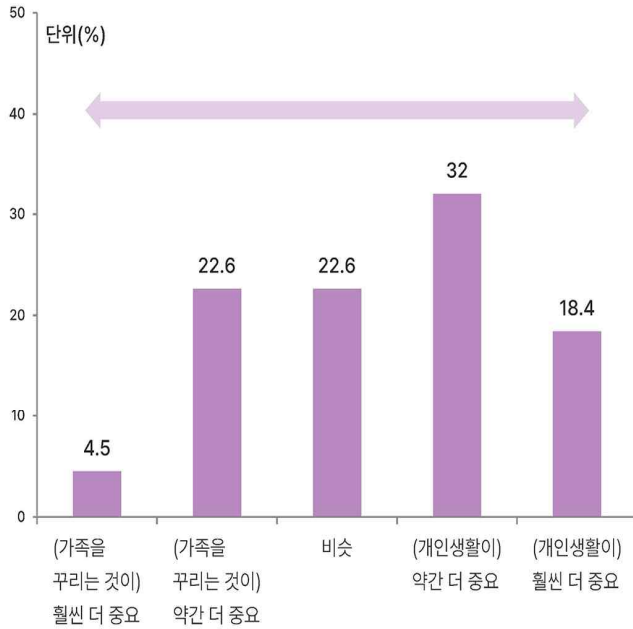


- 결혼하지 않은 20-30대에게 '연애하는 것'과 '개인생활(여가, 자기계발, 개인시간 등)'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 조사
- 연애 < 개인생활 (특히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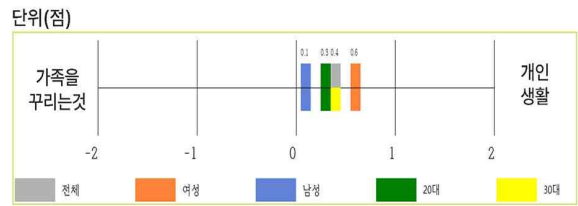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554명)

가족을 꾸리는 것 vs. 개인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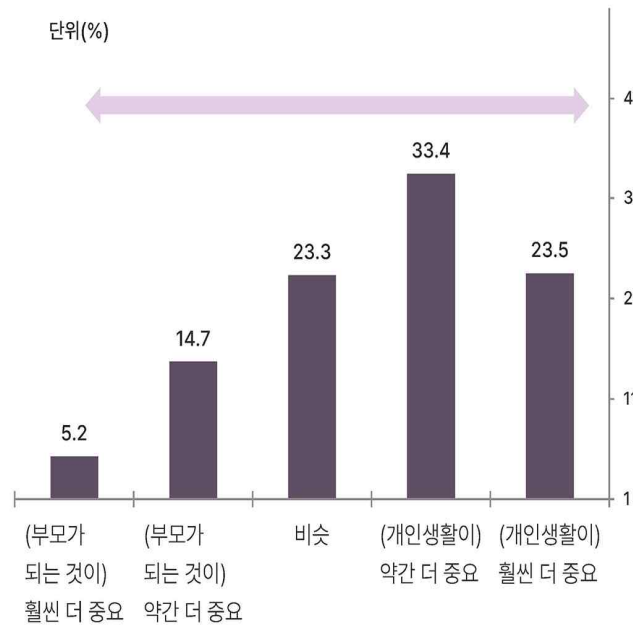


- 결혼하지 않은 20-30대에게 '가족을 꾸리는 것'과 '개인생활(여가, 자기계발, 개인시간 등)'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더 중요한지 조사
- 가족을 꾸리는 것 < 개인생활 (특히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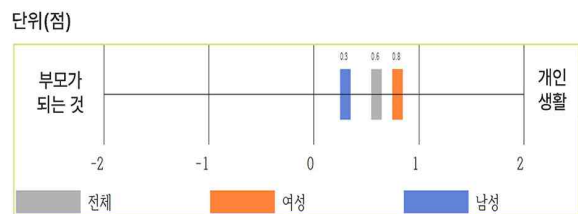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554명)

부모가 되는 것 vs. 개인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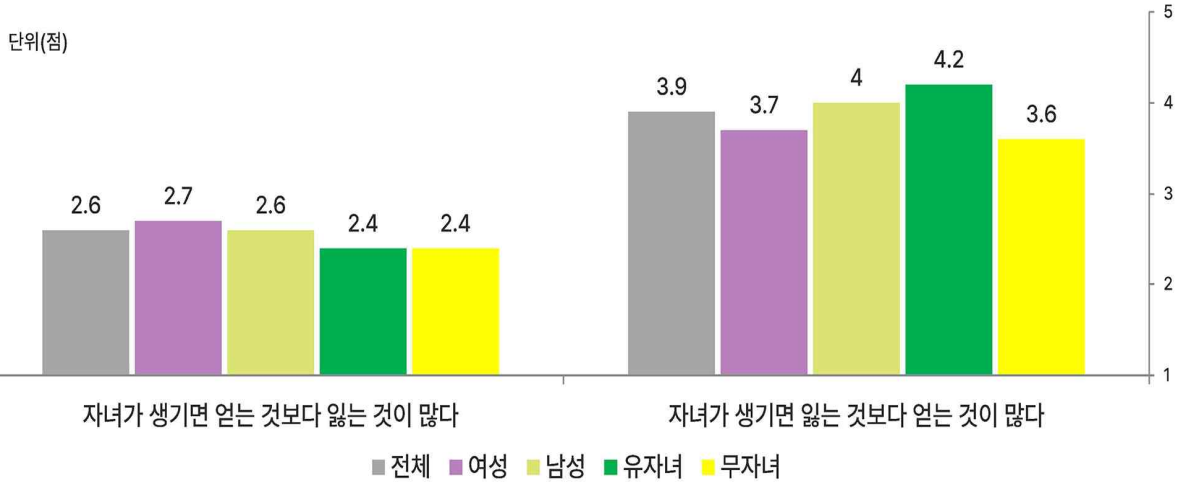
- 자녀가 없는 20-40대 서울시민에게 '부모가 되는 것'과 '개인생활(여가, 자기계발, 개인시간 등)'을 양쪽에 두고 어떤 쪽이 본인에게 더 중요한지 조사
- 부모가 되는 것 < 개인생활 (특히 여성)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554명)

부모됨의 득 vs. 실

- '자녀가 생기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 동의 / 무자녀 > 유자녀
- '자녀가 생기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 대체로 동의 / 남성 > 여성, 유자녀 > 무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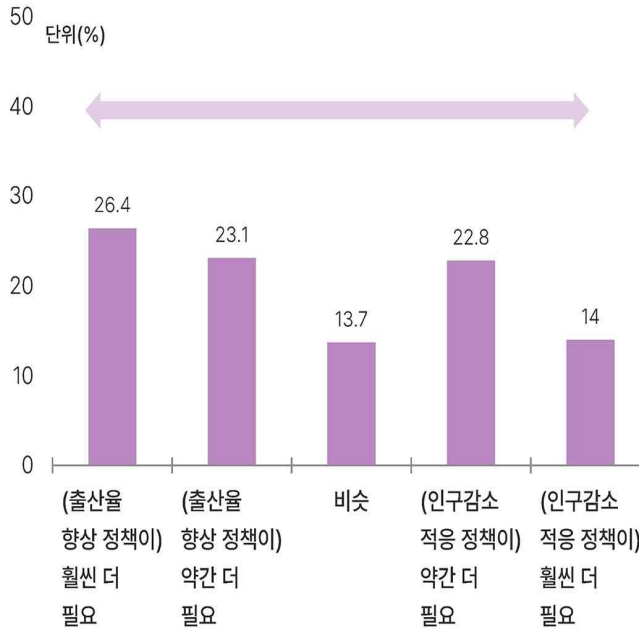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결혼한 적 없고, 자녀가 없는 20-30대 554명)

하이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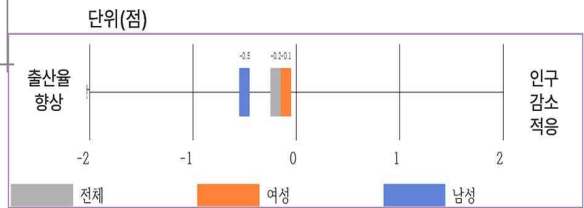
성별 차이

- 부모가 될 의향,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이유: 성별 차이 두드러져
- 부모가 되려는 이유, 부모가 된 이유: 성별로 유사한 양상
- 부모됨 및 자녀양육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개인생활 중요시: 특히 여성
- 배경: 부모역할에서 전통적 성역할 분담 지속
 - + '완벽한' 어머니역할 기대(intensive mothering ideology; Hays, 1996)
- 현실적 기대: '이만하면 괜찮은(good enough)' 엄마, 아빠(Bettelheim, 1987)

출산율 향상 vs. 인구감소 상태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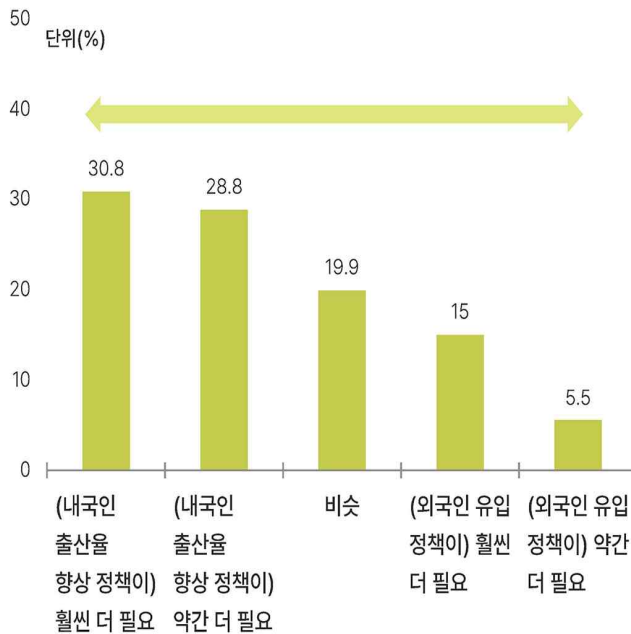


- 저출생 대응정책의 방향에 대해
'저출생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인구감소에 적응하는 정책'을 양쪽에 제시하고 어떤 쪽이 더 필요한지 조사
- 출산율 향상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과 인구 감소 적응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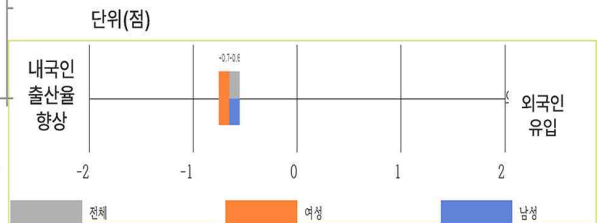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내국인 출산율 향상 vs. 외국인 이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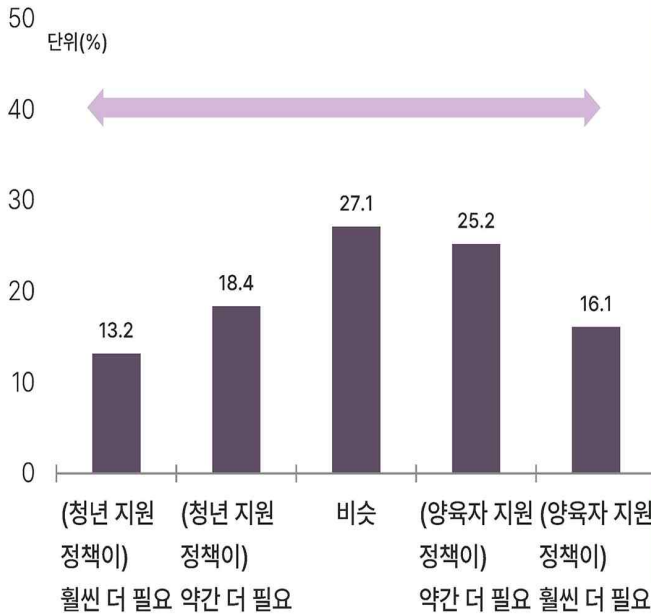


- '내국인의 출산율을 향상시켜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과 '외국인 이주 인구 증가 정책'을 양쪽에 제시하고 어떤 쪽이 더 필요한지 조사
- 내국인 출산율 향상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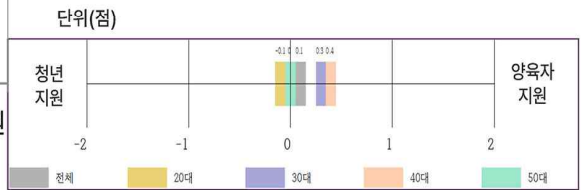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청년 지원 vs. 양육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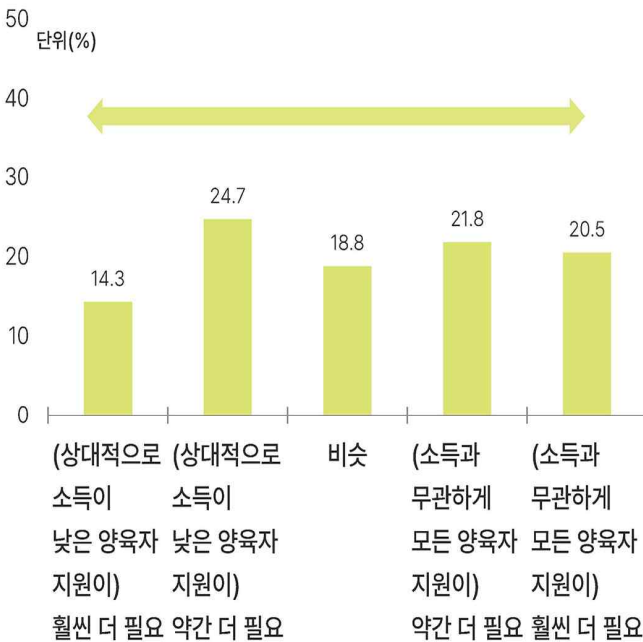


- '미래의 부모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과 '현재 부모인 양육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양쪽에 제시하고 어떤 쪽이 더 필요한지 조사
- 양쪽 모두 필요하다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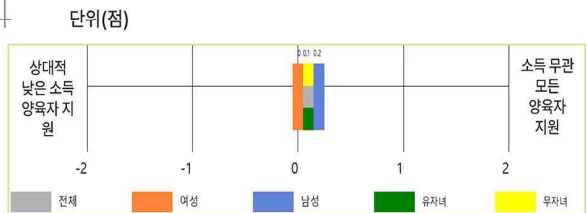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 vs. 모든 양육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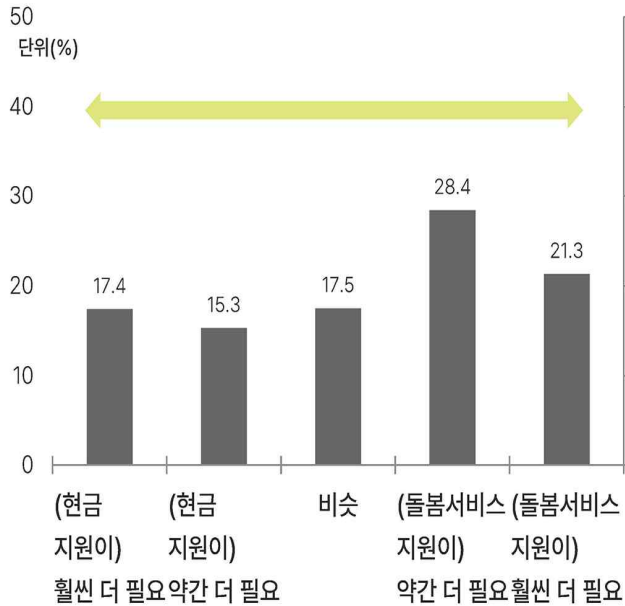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과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양육자 지원'을 양쪽에 제시하고 어떤 쪽이 더 필요한지 조사
- 다른 문항에 비해 다양한 입장
- 남성이 여성(0점)보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양육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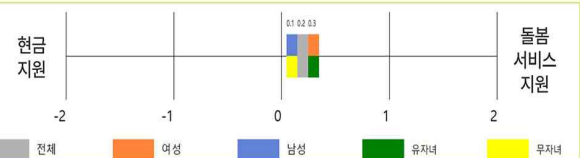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I 양육자 지원: 현금 지원 vs. 돌봄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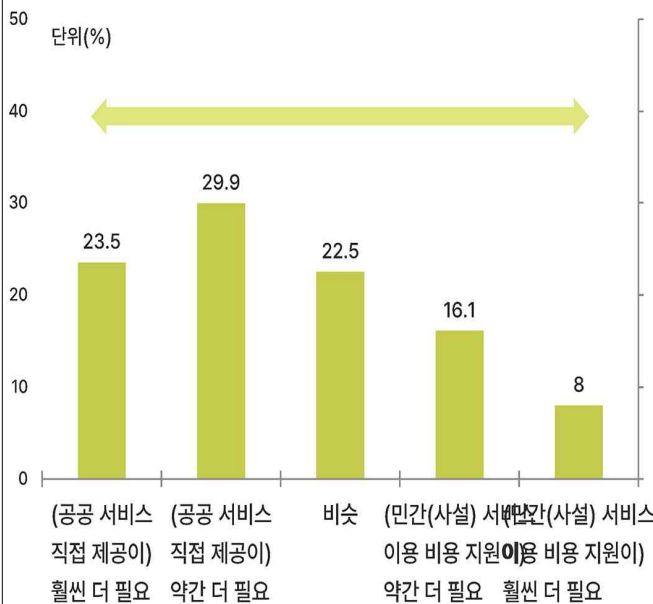
- 양육자 지원 정책으로 '현금 지원(예: 부모급여, 출산축하금, 아동수당)'과 '돌봄서비스 지원(예: 어린이집,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을 양쪽에 제시하고 어떤 쪽이 더 필요한지 조사
- 돌봄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경향
- 여성, 유자녀 집단이 (남성, 무자녀 집단보다) 돌봄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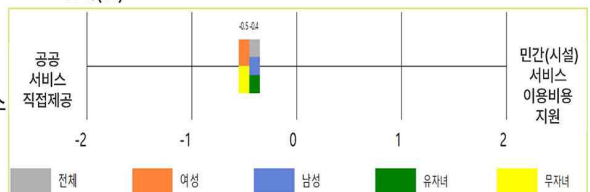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비스비 전체 응답자

I 아동돌봄: 공공 서비스 제공 vs. 민간(사설)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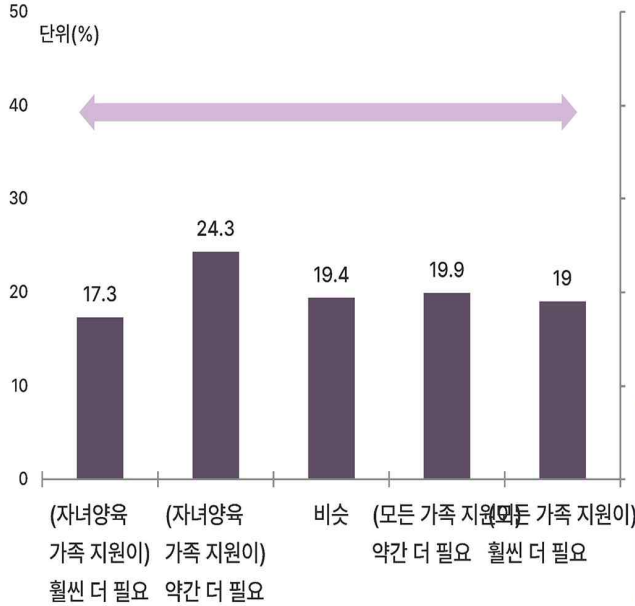
- 아동돌봄 지원 정책으로 '공공 서비스 직접 제공(예: 아이돌봄서비스, 서울형 키즈카페)'과 '민간(사설)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예: 민간 육아도우미, 사설 키즈카페 바우처)'를 양쪽에 제시하고 어떤 쪽이 더 필요한지 조사
- 공공 서비스 직접 제공이 더 필요하다는 경향

단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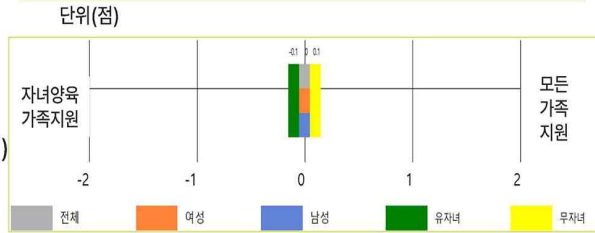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비스비 전체 응답자

자녀양육 가족 지원 vs. 모든 가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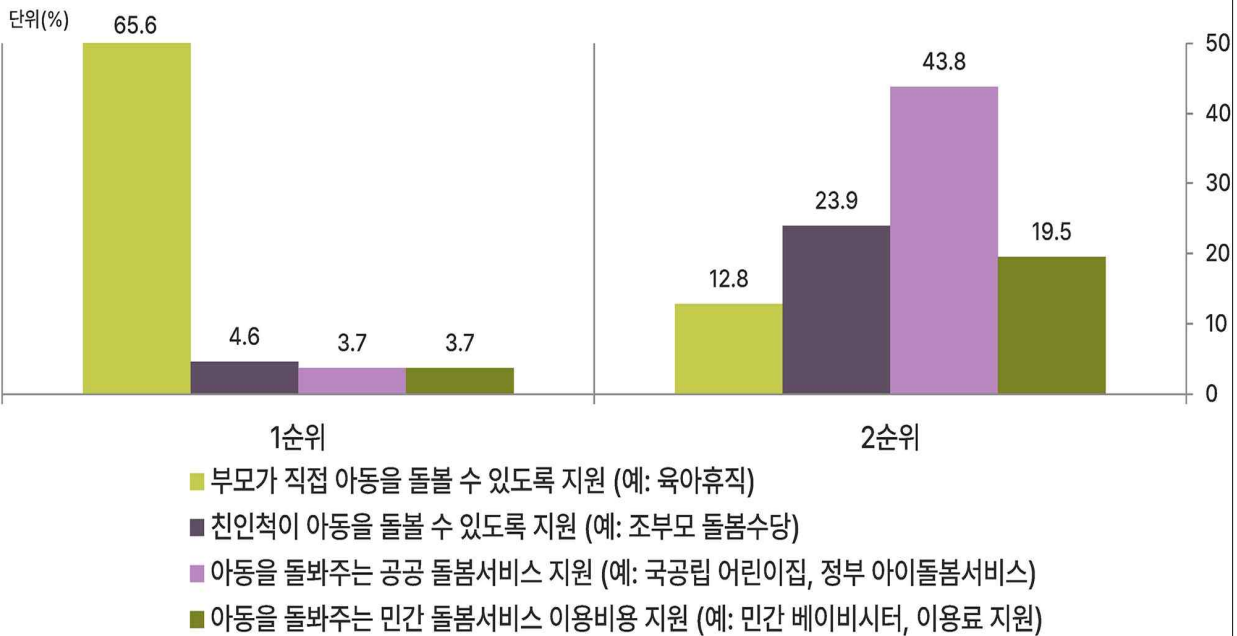


- '자녀양육 가족 지원'(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과 '모든 가족 지원'(예: 양육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을 양쪽에 제시하고 어떤 쪽이 더 필요한지 조사
- 응답이 분산된 경향
- 유자녀 집단이 무자녀 집단보다 자녀양육 가족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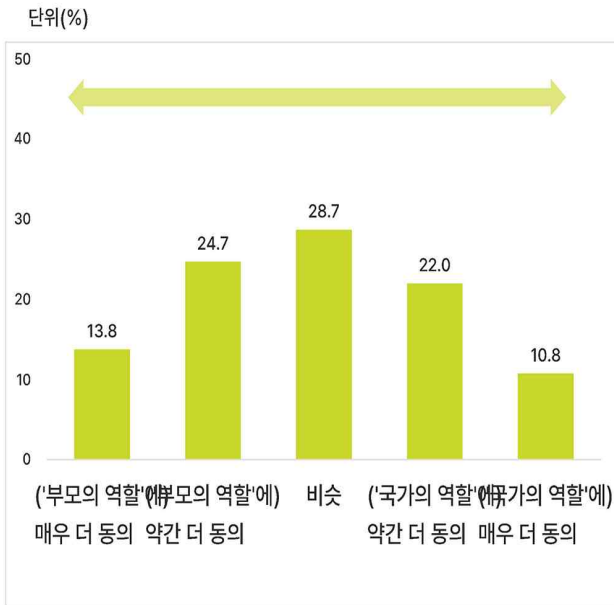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아동돌봄 지원 정책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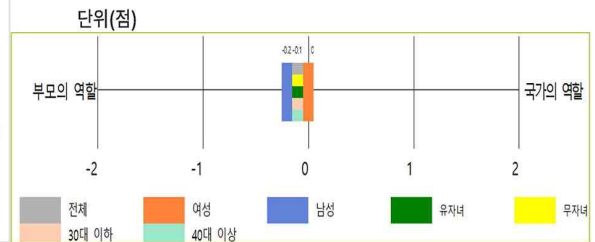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아동돌봄의 책임: 부모 vs.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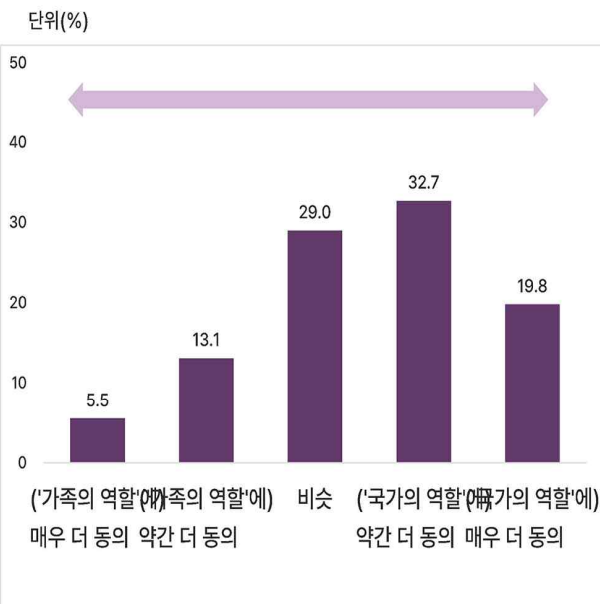


- 아동돌봄의 책임 소재에 대해 ‘부모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을 양쪽에 두고 조사
- 부모와 국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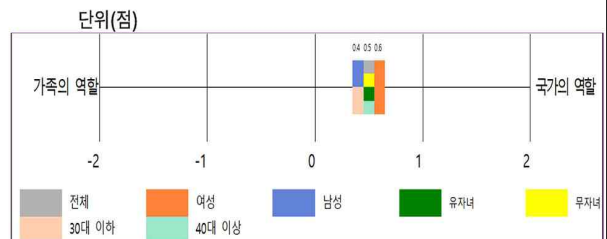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노인돌봄의 책임: 가족 vs. 국가



- 노인돌봄의 책임 소재에 대해 ‘가족의 역할’과 ‘국가의 역할’을 양쪽에 두고 조사
- 국가의 책임이라는 응답 경향



자료: 2024 서울가족서베이 전체 응답자

하이라이트

수렴되는 시민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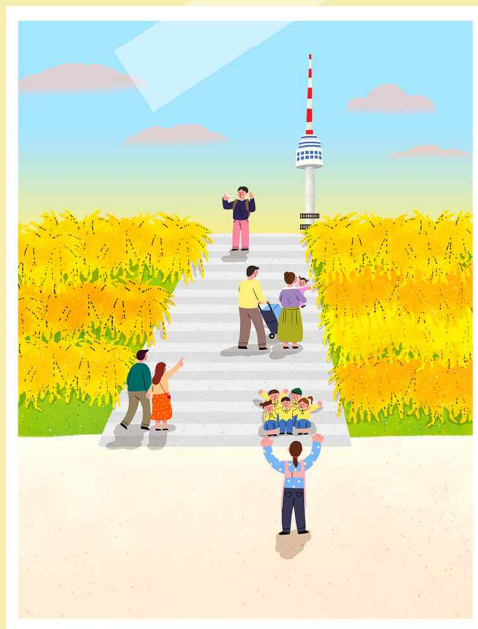
- 아동돌봄은 부모와 국가 공동의 책임
- (파격적) 현금 지원보다 공공 돌봄서비스 필요
- 친인척 돌봄 지원, 민간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보다 공공 돌봄서비스 필요
- 청년 지원 vs. 양육자 지원: 비슷하게 필요

엇갈리는 시민 의견

- 출산율 향상 vs. 인구 감소 적응
- 소득이 낮은 양육자 지원 vs. 모든 양육자 지원
- 자녀양육 가족 지원 vs. 모든 가족 지원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서울 부모의 인식



한국가족정책학회
이윤주 국민대학교 교수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저출생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SSFP 한국가족정책학회
Society for the Study of Family Policy

한국 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서울 부모의 인식

2024/10/18

서울가족플라자 다목적홀

이윤주(국민대학교)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저출생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증가

-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
-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 •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2006-2010)

비전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정책 목표 ▶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
▶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정책 과제	가족돌봄의 사회화	1-1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1-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직장·가정의 양립	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구축



서울시의 영유아 돌봄 관련 지원 사례

- 2009년 서울형 어린이집 도입
- 2012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조례] 제정 및 공포
- 2022년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 2024년 탄생응원프로젝트



- 분석 내용: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우리 사회가 돌봄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가?

돌봄의 중층적 의미(진미정, 2022)

- 노동으로서의 돌봄
 -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돕는 노동. 신체적 접촉 동반.
- 관계로서의 돌봄
 -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내재되어 있거나, 사회적 의무로 부과되기도 하고, 관계성을 만들어내기도 함.
- 윤리적 가치로서의 돌봄
 - 인간을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존재로 보도록 하고,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구성에 필수적인 가치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분석 자료 및 대상

- 분석 자료: 2023 서울서베이
 - 서울시의 현 상태를 과학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
 - 2003년부터 매해 실시
 - 2023년 조사: 20,000가구 내 만 15세 이상 가구원 35,881명
 - 인구와 가구, 교육과 돌봄 등 다양한 영역의 지표를 조사
- 분석 대상
 - 가구 내 미취학 아동이 있는 만 49세 이하 기혼 응답자 2,001명

분석 문항 및 기준

- 분석 문항
 - “우리 사회는 돌봄(아동·노인·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 5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점 ‘매우 동의’)에 따라 보고한 응답의 평균값을 분석
- 분석 기준
 - 개인 특성: 연령대, 성별, 취업 여부
 - 가족 특성: 막내 자녀의 연령, 보육 방법, 돌봄 기관 유형, 돌봄 기관 만족도
 - 지역사회 인식 특성: 사회자본
 - 하위집단별로 나누어 차이를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중심으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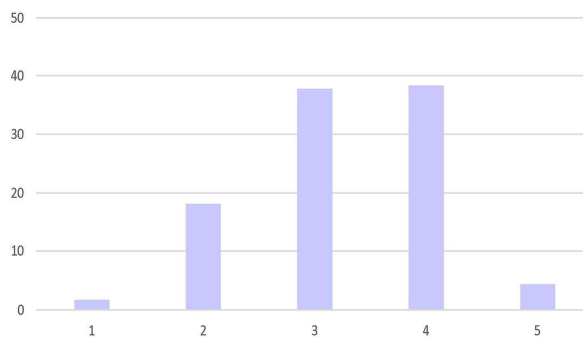
분석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수		n(%) / M(SD)	변수	n(%) / M(SD)	
평균연령		36.49(3.66)	주택 형태	단독주택	394(19.69)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2(8.60)	주택 형태	아파트	977(48.83)
	초대졸	551(27.54)		다세대주택	420(20.99)
	대학교 졸업 이상	1,278(63.87)		연립주택/빌라/기타	210(10.49)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	558(27.89)		점유 형태	자기집
400-500만원 미만	513(25.64)	전세(월세없음)	1,459(72.91)		
500-600만원 미만	405(20.24)	보증금 있는 월세	111(5.55)		
600-700만원 미만	334(16.69)	5대 권역	도심권		69(3.45)
700만원 이상	191(9.55)		동북권		604(30.18)
평균 가구원수	3.27(0.49)		서북권	393(19.64)	
미취학 아동의 수	1.15(0.36)		서남권	517(25.84)	
미취학 아동의 평균 연령	3.77(1.60)		동남권	418(20.89)	

우리 사회의 돌봄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 평균: 3.25점(SD=0.86)
- 전체 응답자 35,881명의 평균 3.26점(SD=0.84) 및 만 20-49세 미취학 자녀가 없는 비혼 응답자 5,464명의 평균 3.26점(SD=0.85)과 매우 비슷하였음

우리 사회는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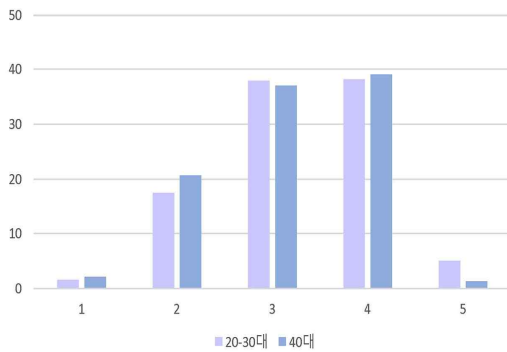


사회의 돌봄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 개인 특성

• 연령대

- 20-30대: 3.28점(SD=0.86)
- 40대: 3.17점(SD=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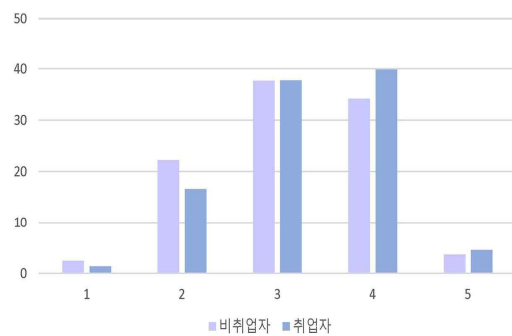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연령대)



• 취업 여부

- 비취업자: 3.14점(SD=0.89)
- 취업자: 3.30점(SD=0.84)

우리 사회는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취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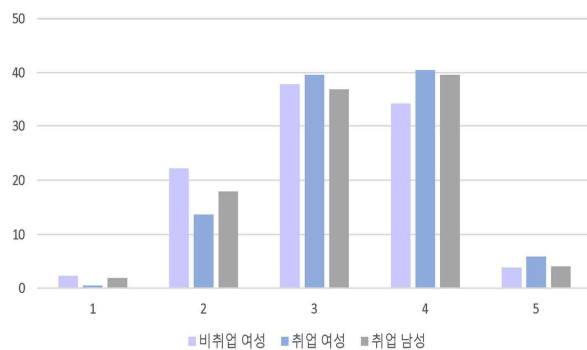
사회의 돌봄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 개인 특성

• 성별 및 취업여부

- 비취업모: 3.15점(SD=0.88)
- 취업모: 3.38점(SD=0.81)
- 취업부: 3.26점(SD=0.86)

- 비취업모 ≒ 취업부 < 취업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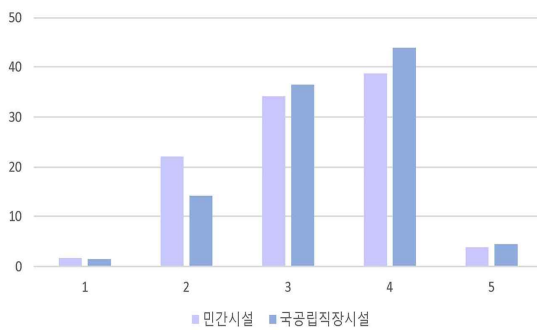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성별&취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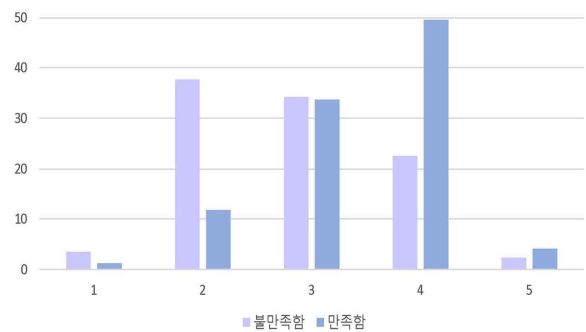
사회의 돌봄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 가족 특성

- 기관 돌봄 이용자 중 돌봄 기관의 유형
 - 민간·가정 시설: 3.21점(SD=0.88)
 - 국공립·법인·직장 시설: 3.36점(SD=0.83)
- 돌봄 기관 만족도
 - 불만족함: 2.83점(SD=0.90)
 - 만족함: 3.43점(SD=0.80)

우리 사회는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돌봄 기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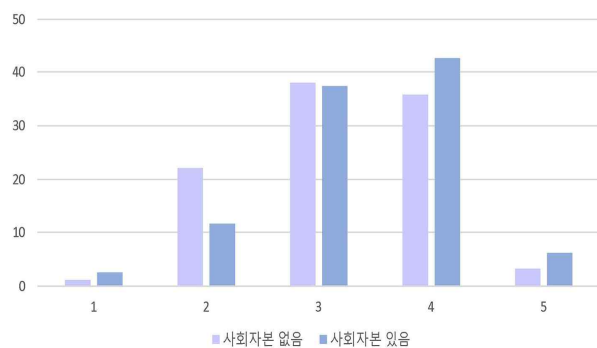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돌봄기관 만족도)



사회의 돌봄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 지역사회 인식 특성

-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동네)에 서로 알고 지내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참여하는 지역사회 모임이 있는지 등을 묻는 4개 문항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한 경우 사회자본이 있다고 보았음
 - 사회자본 없음: 3.18점(SD=0.85)
 - 사회자본 있음: 3.38점(SD=0.86)

우리 사회는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사회자본)



시사점

- ‘우리 사회는 돌봄을 지원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3.25점)는 보통(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
 - 노동, 관계, 가치로서의 돌봄이 균형있게 지원되었는지 돌아볼 필요
- 노동으로서의 돌봄 지원
 - 부모의 돌봄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보육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은 여전히 중요
 - 가족 특성 중 막내 자녀 돌봄 기관 유형(국공립·법인·직장), 기관 만족도 높을수록 사회의 돌봄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높았음
 - 민간·가정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예: 동행어린이집)

시사점

- 관계로서의 돌봄 지원
 -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개인 특성 중 비취업자, 특히 비취업모는 사회의 돌봄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점수가 매우 낮았음
 - 비취업모의 필요를 고려한 지원 확대(예: 시간제보육 전문 어린이집, 서울우먼업 내실화)
- 가치로서의 돌봄 지원
 - 돌봄의 가치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개인 특성 중 20-30대일수록, 지역사회에 사회자본이 있다고 답할수록 사회의 돌봄 지원 정도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았음
 - 현금지원 사업과의 균형, 가족센터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내실화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1차 성과평가



서울연구원

안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024 서울시 가족정책 공동 심포지엄]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1차 성과평가

인현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최재은 부연구위원, 김현정 연구원, 문진영 연구원



※ 이 발표는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1차 성과평가 및 자수 개발'의 중간보고 자료를 발제한 것으로, 일부 수치와 결과는 향후 최종 연구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 가족정책 공동 심포지엄 자출생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성과평가의 배경 :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2022년 8월, 서울시는 양육자 종합 지원책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발표

5년(~26년) 동안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4개 분야 28개 사업에 14.7조 원 투입 예정(정부 사업 시비 매칭 포함)



2/17

성과평가의 배경 :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개편



예비 양육자의 결혼과 출산 등 저출생 대책을 2차로 대대적으로 강화

양육자 지원에서 출발했지만, 예비 양육자까지 확대되면서 정책의 비전-목표-분야-추진전략 등이 재구성

3/17

성과평가의 배경 : 중장기 종합 정책의 추진 점검 필요



5년 동안 다분야 사업이 유기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지 체계적인 점검 필요

연차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실시, 1차('22.8~'23.12) 평가는 시기적으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2.0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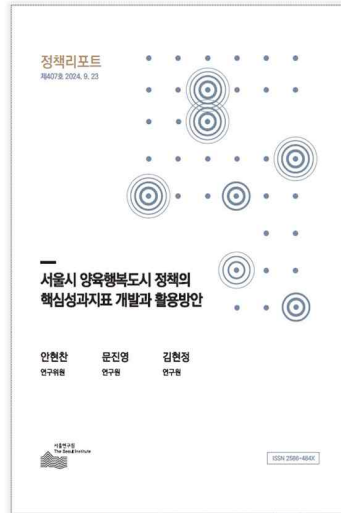
성과평가 방안 : 2023년 서울연구원 성과평가체계 구축 연구



성과평가에 맞춰 정책을 재구조화하고, 성과지표 및 평가방안 등을 개발



<https://www.si.re.kr/node/68601>



<https://www.si.re.kr/node/68666>

5/17

성과평가 방안 : 6개 영역의 추진전략별로 18개 핵심성과지표 개발



영역	추진전략	관리번호	핵심성과지표	적절성 점수		개발유형	평가방식	자료원
				2차	3차			
비전 + 목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1-1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81.1	84.0	기존	상황	서울가족서베이
	양육자 애로 해소	1-2	양육 어려움 경감도(5점)	73.1	74.4	신규	비교	서울가족서베이
	예비 양육자 지원 강화	1-3	(추가)출산 의향(%)	73.5	75.0	기존	비교	서울가족서베이
안심 돌봄	일상 돌봄공백 대응	2-1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84.5	85.0	개선	달성	시 행정자료, 주민등록 인구통계
	긴급/일시 돌봄공백 대응	2-2	틈새돌봄 제공률(%)	77.5	79.5	개선	달성	시 행정자료, 어린이집 통계
	공적 돌봄시설 확충	2-3	공적 돌봄시설 확충률(%)	88.0	89.5	개선	달성	시 행정자료
	돌봄위기가구 양육비 지원	2-4	돌봄위기가구 엔젤지수(%)	72.0	73.5	기존	비교	수해자 설문
편한 외출	엄마아빠아이가 행복한 놀이환경 조성	3-1-1	서울형 키즈카페 접근성(%)	79.6	90.6	신규	달성	시 행정자료
		3-1-2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률(%)	75.6	82.9	신규	달성	시 행정자료
	양육친화 외출환경 조성	3-2	양육친화시설 충족률(%, 등급)	84.0	84.0	신규	상황	시 행정자료
	(예비)양육자가 편안한 이동 지원	3-3	가족친화 이동편의성 향상율(%, 5점)	65.8	81.8	신규	달성	시 주차장 통계, 수해자 설문
건강 힐링	임산부 출산/건강 지원	4-1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율(%)	78.5	80.0	기존	상황→달성	수해자 설문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4-2	양육효능감 증가율(%)	80.5	82.5	기존	상황→달성	수해자 설문, 서울가족서베이
	아이 건강한 식사 지원	4-3	식사 지원 아동 결식 감소율(%)	72.5	82.0	신규	상황→달성	수해자 설문
일생활 균형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5-1	일생활균형제도 이용률(%)	87.7	87.7	기존	상황+비교	고양노동부 일생활균형지수
	양육자 가사부담 완화	5-2	가사노동 시간 감소율/효능감(%, 5점)	76.0	79.3	기존+신규	상황→달성	수해자 설문
	양육자 취업 지원	5-3	프로그램 참여자 취창업률(%)	81.3	86.0	개선	비교	시 행정자료, 정부 통계
탄생응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6-1	시술비 수혜자 임신 성공률(%)	79.0	80.5	기존	비교	자정·관급계자료/수해자 설문

6/17

성과평가 방안 : 평가 대상 재정비 및 자료원 확보



미시행, 조기 종료 등을 제외한 40개 사업, 15개 추진전략을 선별

사업 52개 → **40개** 미시행(5건) 정책에 포함됐지만 '24년부터 시행(다태아 자녀 안심보험 등)

추진전략 16개 → **15개** 조기종료(3건) '23년에 종료돼 2차 평가부터 제외(육아지원 코디네이터 등)

※인심돌봄 추진전략 중 다양한 가족지원의 모든 사업 제외 정책 변경(4건) "탄생응원서를 프로젝트"에서 제외(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등)

행정자료, 수혜자 평가, 서울양육자서베이 등 다양한 데이터 확보

행정자료
(서울시/정부)

- 담당부서별 사업 실적 자료
- 인구, 시설 등 현황 자료
- 여성 취업률 등 정부 통계자료
- 일부 자료는 연구진이 자체 조사
- 아직 미확보, 검증 필요한 자료 존재

수혜자 평가
(설문조사)

- 11개 사업의 2,540명 수혜자 조사
- 서울시 지원 전후 비교로 성과 확인
- 협조한 사업부서에 결과 공유
- 서울형 가사서비스 평가 결과 확보 중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 수행)

서울양육자서베이
(설문조사)

- 서울시 무자녀/임신/유자녀부부 1,610명
- 가족 및 양육 실태, 정책 인식과 수요 파악
- 집단별, 정책 경험 유무별 비교 가능
- 9/23 조사 완료로 현재 데이터클리닝 중
- 성과지표만 산출했고, 향후 심화분석 실시

7/17

성과평가 결과 : 전체 지표 개관



18개 지표 중 유보 2건 제외, 달성 81%, 부분달성 13%, 미달성 6%

영역	추진전략	관리번호	핵심성과지표	지표값	평가 방법	평가 결과	
비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1-1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3.58점	비교	달성	
	양육자 애로 해소	1-2	양육 어려움(10점) 경감도	6.51점	비교	부분 달성(유지)	
목표	예비 양육자 지원 강화	1-3	(추가)출산 의향(%)	52.0%	비교	달성	
	일상 돌봄공백 대응	2-1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1.2%	달성(0.75% ↑)	달성	
	긴급/일시 돌봄공백 대응	2-2	특새돌봄 제공률(%)	6.8%	달성(5.7% ↑)	달성	
안심 돌봄	공적 돌봄시설 확충	2-3	공적 돌봄시설 이용률(%)	64.5%	비교	유보	
	편한 외출	엄마야빠이아이가 행복한 놀이환경 조성	3-1	서울형 키즈카페 접근성(%)	20.0%	달성(17.7% ↑)	달성
		가족 힐링 프로그램 운영률(%)		79.2%	달성(18.8% ↑)	달성	
편한 외출	양육친화 외출환경 조성	3-2	양육친화시설 총족률(%)	18.1%	달성(23.4% ↑)	미달성	
	양육친화시설 등급(우수/양호/미흡)		0/13/59개	달성			
편한 외출	(예비)양육자가 편만한 이동 지원	3-3	가족친화 이동 편의성 향상율	가족주차면 증가률(%) 9.3%	달성(10%)	부분 달성	
			택시 만족도(4점)	3.6점	달성(3.3점)	달성	
건강 힐링	임산부 출산/건강 지원	4-1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율(%)	62.7/56.2%	비교	달성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4-2	양육효능감 증가율(%)	48.5%	비교	달성	
	아이 건강한 식사 지원	4-3	식사 지원 아동 결식 감소율(%)	84.9%	달성(기준 無)	달성	
일생활 균형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5-1	일생활균형제도 이용률(%)	자료 미확보	비교	유보	
	양육자 가사부담 완화	5-2	가사 지원 효능감(4점)	95.1%	달성(94% ↑)	달성	
	양육자 취업 지원	5-3	프로그램 참여자 취창업률(%)	4.2%p	비교	달성	
탄생응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6-1	평균 시술 건수 대비 임신 건수(건)	3,028건	비교	달성	

8/17

성과평가 결과 : **안심돌봄 분야**



전반적인 성과 우수, 추가 분석 및 자료 검증으로 세밀한 성과 진단 예정

(전략1) 일상 돌봄공백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보충 이용률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 평가 대상 사업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 영아 전담 안심돌봄
 - 등하원 전담 안심돌봄



※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실적 미확인으로 보조지표인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이용률)은 향후 산출 예정

(전략2) 긴급/일시 돌봄공백 대응

틈새돌봄 제공률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일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비율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평가

- 평가 대상 사업
- 아픈아이 전담 안심돌봄
 - 365일 24시간 긴급보육 지원
 - 가정형 7층센터 일시돌봄/생원동행
 - 초등생 방과후 긴급 일시돌봄



※ 영유아와 초등학생 각각의 서비스 제공률도 성과를 달성했는지 추가 분석 예정

(전략3) 공적 돌봄시설 확충

공적 돌봄시설 이용률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

- 평가 대상 사업
- 고품격 공보육 시설 확충
 - 어린이집 0세 전담반 운영
 - 초등돌봄 공적 인프라 확충



※ 공구립 지역아동센터 현원 수 자료의 검증이 필요해 평가 결과 유보 처리

9/17

성과평가 결과 : **편한외출 분야**



신생 분야지만 추진 실적과 성과 양호... 양육친화시설 조성은 다소 저조

(전략4) 엄마/아빠/아이가 행복한 놀이환경 조성

서울형 키즈카페 접근성

서울형 키즈카페를 행정동당 1개 이상 설치한다는 추진 목표를 근거로, 모든 주거지역에서의 접근성을 평가



가족힐링 프로그램 운영률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24개 시립 문화시설 중 가족힐링 프로그램(전시/교육/체험/공연)을 운영하는 비율



(전략5) 양육친화 외출환경 조성

양육친화시설 총족률/등급

72개 시립 문화시설, 공원, 한강, 수변공간 중 엄마/아빠/VIP존, 가족화장실을 설치한 비율(양)과 설치 수준별 등급(질)

- 평가 대상 사업
- 서울엄마/아빠/VIP존 조성
 - 가족화장실 조성



우수(1+1) **0**개소 9개소
양호(1) **13**개소 10개소
미흡(0) **59**개소 53개소

(전략6) (예비)양육자가 편안한 이동 지원

가족친화 이동편의성 향상률

가족배려주차면 증가율(신규 조성률)과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만족도를 각각 평가



※ 단순 실적과 만족도로 성과 진단 효과 미흡, 이용실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규 지표 개발 검토

10/17

성과평가 결과 : 건강힐링 분야



전반적인 성과 우수, 다양한 보조지표로 정책 효과를 입체적으로 확인

(전략7) 임신부 출산/건강 지원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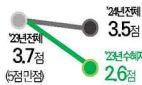
서울시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 '부모로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개선된 비율

- 평가 대상 사업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출산임 몸마음 토달 케어

신체적 어려움

건강양정척도 설문 응답자 비율

62.7%



정신적 어려움

건강양정척도 설문 응답자 비율

56.2%



(전략8) 영유아 건강한 발달 지원

양육효능감 증가율

서비스 이전 대비 이후에 '전반적인 양육 능력' 척도 점수가 높아진 비율로 부모의 양육 역량과 안정감 증가를 평가

- 평가 대상 사업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 미혼모부 양육코칭 지원
 - 다문화가족아마학교/자녀언어지도

'23년 지표값

48.5%

평가 기준(비교)



※ 3개 지표 모두 매년 지속 상승은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달성기준 필요, 향후 3년치 지표값 평균으로 달성 기준값 산출 예정

(전략9) 아이 건강한 식사 지원

식사 지원 아동 결식 감소율

서울시 지원으로 증식과 적식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거르는 아동이 줄어든 비율로 규칙적인 식사 증진 효과를 평가

- 평가 대상 사업
- 어린이집 식식 지원
 - 기움센터 방학중식 무료 제공
 - 퇴근길 도시락/실키트 할인 지원

'23년 지표값

84.9%

보조 지표

93.8% 비용 부담 완화율
92.9% 시간 부담 완화율
90.8% 신체적 부담 완화율

성과평가 결과 : 일생활균형 분야



취창업, 가사부담 등 실질 효용 확인됐지만, 유보 평가 완료 후 종합 진단 가능

(전략10)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일생활균형제도 이용률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 해당 제도를 사용한 사업장의 비율로, 서울시 정책에 따른 제도 이용률 증가를 평가

2018~21년 전국 및 서울시 지표값 추세 비교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지수에서 4개 제도 지표만 추출

연도	전국	서울시
2018년	0.07	0.11
2019년	0.08	0.12
2020년	0.11	0.13
2021년	0.10	0.12

“서울시 이용률 증가 추세 둔화, 전국과의 차이 감소 추세 반전 필요”

※ 평가 자료인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지수 자료가 12월에 공개돼 유보 처리(평가 연기)

(전략11) 양육자 가사부담 완화

가사 지원 효능감

가사 지원으로 양육자가 느끼는 가사부담이 경감된 정도로 서울시 서비스 효과를 평가

- 평가 대상 사업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확대

'23년 지표값

95.1%

평가 기준(달성)

94.0%

건강양정척도 설문 응답자 비율
한부모 서비스 99.4%
서울형 서비스 94.5%

'20년 서울시 한부모 서비스
선행연구로 기준치 설정

※ 서울형 가사서비스 조사 결과는 (이선형 외, 2024, “서울시 가사 서비스 지원 정책 발전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용

(전략12) 양육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취창업률

당해연도 우먼업 프로그램 참여자 중 취창업에 성공한 비율로 정책 지원의 고용 효과를 평가

- 평가 대상 사업
- 우먼업 구직지원금
 - 우먼업 인턴십
 - 우먼업 고용장려금

'23년 지표값

4.2%p

전년 대비 취창업률 증가분
'22년 53.3% → '23년 37.5%

평가 기준(비교)

1.4%p

전국 여성 고용률 증가분
'22년 60% → '23년 61.4%

성과평가 결과 : 탄생응원 분야



난임부부 지원은 소득기준 폐지로 실적 급증, 이를 반영해 성과지표를 변경

(전략13) 난임부부 지원 확대

(전략13)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술비 수혜자 임신성공률

난임부부 시술비 수혜대상자 중 임신 성공(임신낭 확인) 비율

'23년 지표값

평가 기준(달성)

지난 4년치 평균값 이상 달성

19.7% < 28.0%

연도	지원자(명)	시술건수(건)	임신건수(건)	임신성공률(%)
2019년	7,346	12,642	3,570	28.2
2020년	8,426	17,383	5,023	28.9
2021년	8,337	19,295	5,483	28.4
2022년	8,747	20,096	5,462	27.2
2023년	15,372	36,567	7,203	19.7

소득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자, 시술 횟수 증가로 임신성공률 역진

평균 시술 건수 대비 임신 건수

소득기준 폐지로 인한 지원자 수와 시술 건수 증가를 고려해 임신 건수를 평가

'23년 지표값

평가 기준(달성)

지난 9년치 평균값+20년 증가량

3,028건 > 2,800건

지원자당 평균 시술 건수(건/명)	평균 시술 건수 대비 임신 건수
(12,642건 / 7,346명) = 1.7	(3,570건 / 1.7건) = 2,074
2.1	2,435
2.3	2,369
2.3	2,377
2.4	3,028

'20년 지원금 상향으로 모든 실적 급증

평균 시술 건수는 비슷,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가 임신 건수 증가에 기여

역진 현상 제어,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효과까지 평가 가능

13/17

2024 기획정책 공동실무회의 자료발생시대, 서울형 기획정책

성과평가 결과 : 정책 목표



서울시 정책으로 양육 어려움은 약간 경감, (추가)출산의향은 확실히 증가

(목표1) 양육자 애로 해소

(목표2) 예비 양육자 지원 강화

양육 어려움(10점) 경감도

서울시 지원으로 양육 어려움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를 평가

구분	정책	'23년	'24년	증감
전체	유경험	6.58	6.58	0.00
	무경험	6.40	6.35	-0.05
영아	유경험	6.92	6.99	0.07
	무경험	6.65	6.89	0.24
유아	유경험	6.53	6.41	-0.12
	무경험	6.65	6.65	0.00
초등 저	유경험	6.69	6.71	0.02
	무경험	6.56	6.35	-0.21
초등 고	유경험	6.11	6.15	0.04
	무경험	6.07	6.00	-0.07

양육 어려움이 작년과 거의 동일
▶ 지표값을 보통으로 평가

영아는 유경험자가 어려움 덜 증가, 유아는 유경험자만 어려움이 감소
▶ 집중 지원한 영유아 양육자에서는 어려움 경감 효과가 약간 발생

초저는 무경험자만 어려움이 감소
▶ 어려움이 큰 데 반해, 지원 사업 적고 실적도 다소 저조

영아, 초등 저학년 양육자 지원 강화 필요

(추가) 출산 의향(%)

출산 의향(무자녀 기준) 또는 추가 출산 의향(자녀계획을 미룬료한 유자녀 기준)이 있는 비율로 출산율 제고 가능성을 평가

구분	'23년	'24년	정책 유경험	정책 무경험
무자녀 부부	56.5	68.5	90.9	65.7
임신 부부	미실시	55.0	51.7	58.5
유자녀 부부	27.3	30.3	36.9	16.2

유경험) 무경험) 작년 수 ▶ 의향 있는 사람이 정책을 이용해(난임 시술비 지원)

무경험) 유경험 수 ▶ 임신 어려움 때문에 추가 출산 포기(난임 시술비 수혜자 24%)

유경험) 작년) 무경험 수 ▶ 유경험자 증가, 무경험자 감소로 정책 효과 있다고 평가

모든 집단에서 작년보다 높아 ▶ 지표값을 우수로 평가
무자녀) 임신) 유자녀 수 ▶ 저출생 정책은 다자녀 보다 1자녀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정책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확인

14/17

성과평가 결과 : 정책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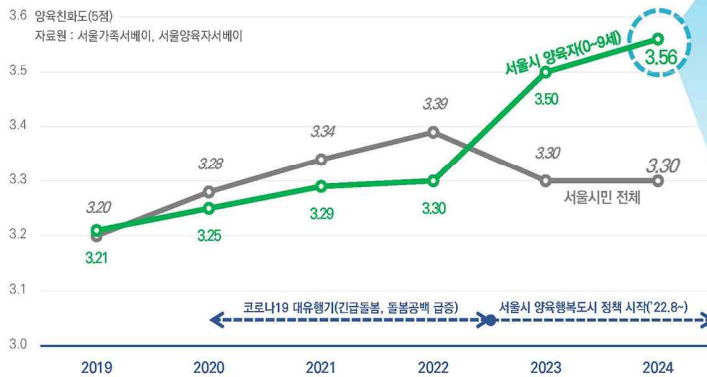
서울시 양육친화도는 과거/서울시민/정책 무경험자 등 모든 비교에서 증가

(비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서울은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이다*라는 질문에 응답한 비율을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 2024년 서울양육자서베이에 추가된 초등 고학년(10~12세) 양육자 응답을 포함했기 때문에 시계열 그래프 총점(3.56점)과 0.2점 차이가 있음



구분	'24년	정책 유경험	정책 무경험	차이
전체	3.58*	3.67	3.50	0.17
무자녀 부부	3.47	3.72	3.43	0.29
임신 부부	3.83	3.92	3.74	0.18
유자녀 부부 (0-12세)	3.57	3.60	3.51	0.09

엔데믹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시 정책이 출산과 양육 당사자들에게 도시의 종합적인 양육환경이 좋아진다는 인식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성과평가 시사점과 향후 과제



정책 초기 추진으로는 우수, 특정 분야와 대상 지원 개선하려면 심화평가 필요

성과평가 시사점 : 전체적으로 양호... 시설 조성 분야, 초등 및 예비 양육자 지원 강화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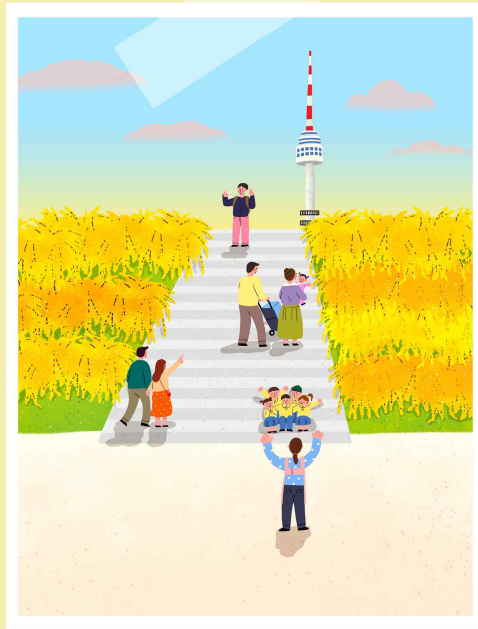
- 정책 설계 : 양육 부담 완화에서 출발해 영유아 양육자 지원이 다수(영유아 63.7%, 초등 저학년 26.7%, 임신출산 9.6%)
- 추진 실적(모니터링) : 안심돌봄, 일생활균형, 편한외출 순으로 달성률 높고, 초등 양육자, 임신부, 청년 지원은 부분달성 많아
- 성과평가 : 분야/추진전략별 성과가 대체로 우수하지만, 상위 정책 목표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어려워
- 정책 출범 초기 단계로는 추진 실적과 성과가 우수, 하지만 시설 조성 분야, 초등 및 예비 양육자 지원은 개선과 보강이 필요

성과평가 향후 과제 : 이용자 중심 지표 개선과 심화평가로 정책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파악

- 지표 개선 : 일부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는 정책 점검 효과가 얻으려면 서비스와 시설 공급이 아닌 실제 이용 기준으로 개선해야
- 심화평가 : 자녀 연령대/맞벌이 여부/정책 경험 유무 등에 따른 비교 분석, 타 실국 및 민간 협력 저조 원인 파악 필요
- 지수 개발 : 서울시민과 양육자가 정책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성과평가 지수 개발 예정
- 서울시의 정책 개선 노력(주거 지원,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 제도, 타 실국/자치구/민간 협력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제공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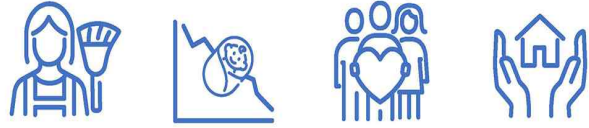
서울시가족서비스 이용실태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24.10.18. 2024 가족정책 공동 심포지엄
저출생 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인)*

이선형 _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연구위원

*본 발표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의 일부입니다.
이선형, 류지아, 이수연(2024 발간예정), "서울시 가사서비스 정책 발전방안"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배경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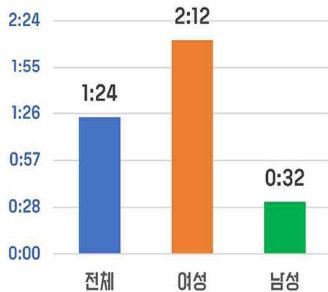


일생활균형 어려움

가사노동시간 성별 격차 지속
양육자의 쉼과 휴식 부족

서울시 평일 가사노동시간(성별)

출처: 생활시간조사(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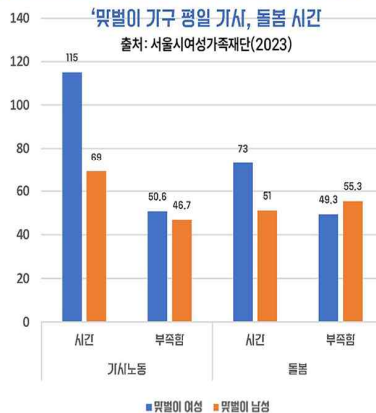


가사, 돌봄 여성 집중

맞벌이 가구 여성, 돌봄보다 가사노동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함

'맞벌이 가구 평일 가사, 돌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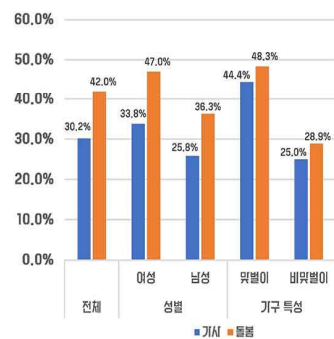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3)



결혼과 출산 기피 저출생 심화

'가사, 돌봄이 쉼에 영향을 준다'

출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3)



가사서비스 정책 관련 이론적 논의

03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돌봄 사회 조성

-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탐욕스러운 노동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가사노동과 돌봄의 성별 격차 해소는 불가능 (클라우디아 골딘, 2021).
- 일생활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 가족문화



가사노동의 가치 평가: 기계생산위성계정

-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국민소득 통계를 보완
- 2018년 이후 한국 통계청 기계생산위성계정 작성
 - 2019년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 356조, 남성은 134.9조

코로나19 이후 돌봄 경제(care economy)의 중요성 대두

- 돌봄 경제 : 현재와 미래 인구의 양육과 재생산에 기여하는 돌봄과 서비스. 보육, 노인, 돌봄, 교육, 의료, 개인 사회 및 가사서비스 포함. 유급 및 무급,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모두 포함 (황선자, 2004; ILO, 2024)
 - 직접적 돌봄 노동 :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관계적 특징을 가진 돌봄 노동
 - 간접적 돌봄 노동 : 청소와 요리 등 직접적인 개인 접촉 없이 수행되는 활동

가사서비스 공식화에 따른 서비스 질 제고 기대

04

2011.06.06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Convention-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 Convention. No. 189, 이하 가사노동협약)”과 권고 채택,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의 정의, 가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등 관련 내용 포함

2022.06.1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사근로자법') 시행



기존




개선



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 05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이용시간**
1가구당 3시간(연 22회)

 **지원내용**
청소, 세탁, 설거지(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특수 전문가격을 요하는 서비스 제외)

추진체계




추진연혁

- 2017 서울시 돌봄네트워크에서 논의 시작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협력
- 2018 서울시 시범사업, 2019년 본 사업
- 2020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6조 7항에 '한부모가족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 추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06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이용시간**
1가구당 4시간(연 10회)

 **지원내용**
청소, 세탁, 설거지(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특수 전문가격을 요하는 서비스 제외)

추진체계

서울시	시 가족센터	자치구	서비스 제공업체
사업총괄 사업계획수립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신청자 자격확인	가사관리사 매칭
서비스 제공업체 선정	홍보 및 민원응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서비스 제공 및 민원응대
예산교부	사후관리 모니터링		보조금 신청

추진실적

연도	총신청 가구	지원 유형별		
		임산부	다자녀	맞벌이
2023년 실적	6,064	2,071	3,164	829
2024년 계획	10,000	3,500	5,000	1,500

출처 : 서울시 내부 자료(2024)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07

SURVEY

조사 대상: 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한부모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자 1395명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서울시가족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발송)

- 조사 내용:**
- 전반적인 가사활동 실태
 - 가사서비스 이용 경험 및 현황
 - 가사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
 - 가사서비스 정책 수요 및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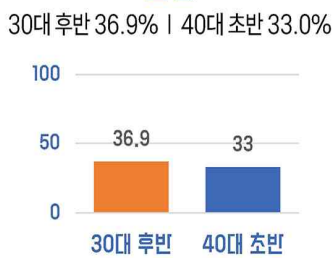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응답특성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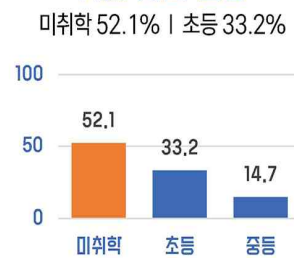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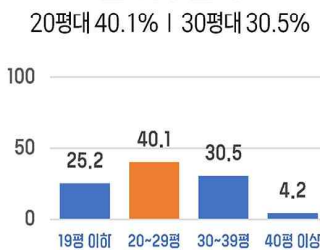
첫째 자녀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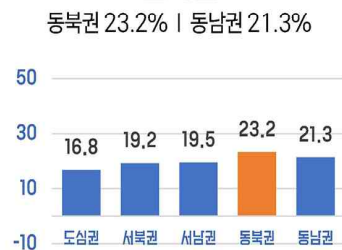
가구소득



실 거주면적



권역별



가사활동 실태 : 난이도 및 필요도

09

가사 활동 난이도

- 욕실 청소, 가스레인지, 후드 청소, 베란다 청소 등 난이도 높음
- 세탁 관련 업무, 재활용품 난이도 낮음

가사관리사 도움이 필요한 활동

- 욕실 기본 청소, 욕실 타일 곰팡이 제거 및 배수구 청소, 가스레인지, 후드 청소 등 필요도 높음
- 재활용품, 세탁, 쓰레기 비우기, 현관 청소 등 필요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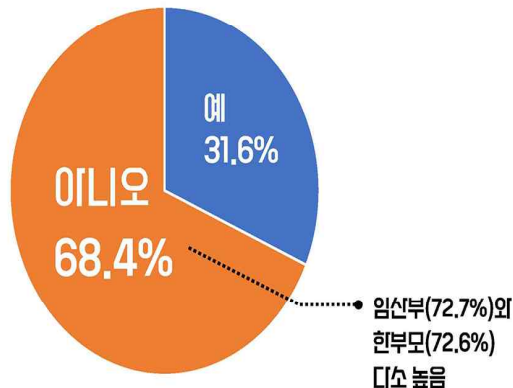
서울시 가사서비스 범위와 이용자 기대 간극

- 이용자가 기대하는 범위와 서울시 가사서비스 범위 다름 확인

민간 가사서비스 이용경험

10

Q.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전에 민간 가사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으요?



- 가사서비스 신규 이용자 68.4%(가사관리사 신규 인력 54.2%)
- 가사서비스 현장에 대한 이해가 다름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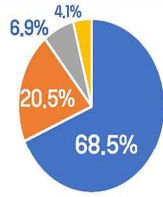
구분	N	예, 2022년에 정기적으로 이용한 적 있음	예, 2022년에 비정기적으로 이용한 적 있음	예, 2021년 이전에 이용한 적 있음	아니오
전체	1,395	9.4	14.8	7.5	68.4
맞벌이	664	9.0	16.7	8.9	65.4
디지녀	1081	9.5	15.7	8.5	66.2
임신부	385	10.4	13.8	3.1	72.7
한부모	175	11.4	10.9	5.1	72.6

서울시 기사서비스 신청계기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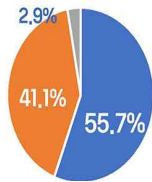
스트레스

-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환경(68.5%)
- 배우자와의 갈등(20.5%)
- 자녀와의 갈등(6.9%)
- 기타(4.1%) : 소진, 우울증, 피로 누적 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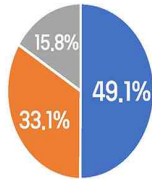
시간이 없어서

- 자녀 등 가족 돌봄(55.7%)
- 일, 학업 때문에(41.1%)
- 기타(2.9%) : 건강, 질병 사유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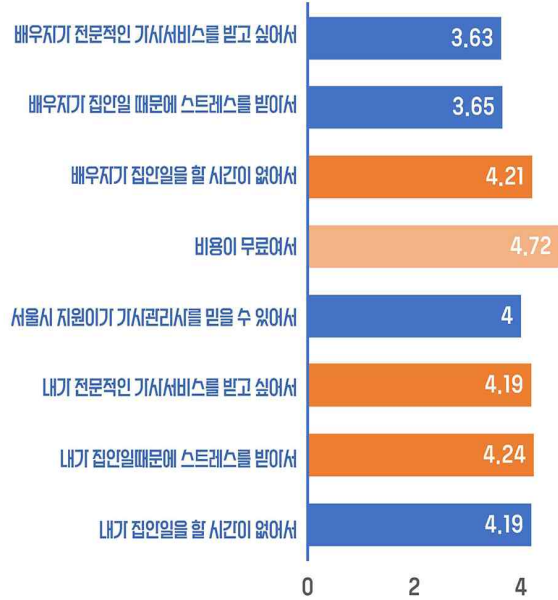


기대했던 전문성

- 바닥, 욕실, 찌든 때 제거 49.1%
- 효율적인 청소 및 설거지 33.1%
- 물건 정리 및 수납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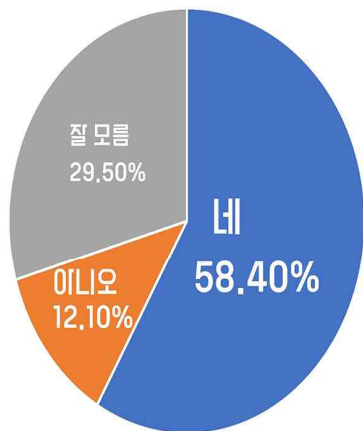
Q. 서울시 기사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기사서비스 이용 현황

12

Q. 기사서비스 이용 전 계약서를 작성 하셨나요?



- 기사서비스 이용계약서 작성했다는 응답이 58.4%, 12.1%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29.5%는 모르겠다고 응답 (가사관리사 근로계약서 작성 91.5%)
-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기사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후 변화

13

가사서비스 이용 후,

-  기사노동 시간 및 스트레스 감소,
-  가족 구성원의 휴식 시간 증가
-  가족 돌봄의 질 개선

등의 변화가 나타남

표 III-2 |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후 변화_기구유형별

단위: 명, 점

구분	전체	맞벌이	디지털	임선부	한부모
사례수	1395	664	1081	385	175
가족 구성원의 휴식 시간이 늘었다	4.14	4.17	4.14	4.06	4.42
가족 구성원의 취미·운동 등 개인 시간이 늘었다	3.72	3.76	3.72	3.50	4.16
일 또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3.96	4.05	3.97	3.76	4.25
기사 노동 시간이 줄었다	4.31	4.32	4.31	4.21	4.48
가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었다	4.23	4.25	4.24	4.11	4.34
집안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줄었다	3.93	3.96	3.93	3.85	4.10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늘었다	4.02	4.07	4.02	3.96	4.16
가족 돌봄의 질이 개선되었다	4.12	4.13	4.13	4.08	4.21

기사노동 시간의 변화

14

"기사노동 시간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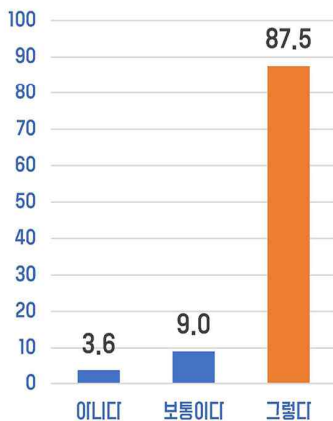


표 III-2 |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후 변화_기사노동시간 변화_감소 단위: 명, %

구분	N	보통이었다	배우자만 줄었다	둘 다 줄었다
전체	1060	31.5	2.7	65.8
맞벌이	587	30.2	2.6	67.3
디지털	858	33.6	2.5	64.0
임선부	311	24.1	4.2	71.7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노동시간이 줄지 않은 이유는?

- 청소가 미흡해서, 추가로 시간을 내서 다시 해야 함. 가사관리사에게 매번 업무를 설명하는 스트레스 등
- 서비스 불만족 및 가사관리사 소통 어려움

서울시 기사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

15

기사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 전체 만족도 82.8점



가사관리사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3.77점)으로 가장 낮음
 기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안내(3.85점)와 고충처리(3.91) 등에 대한 만족도가 그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전문성 불만족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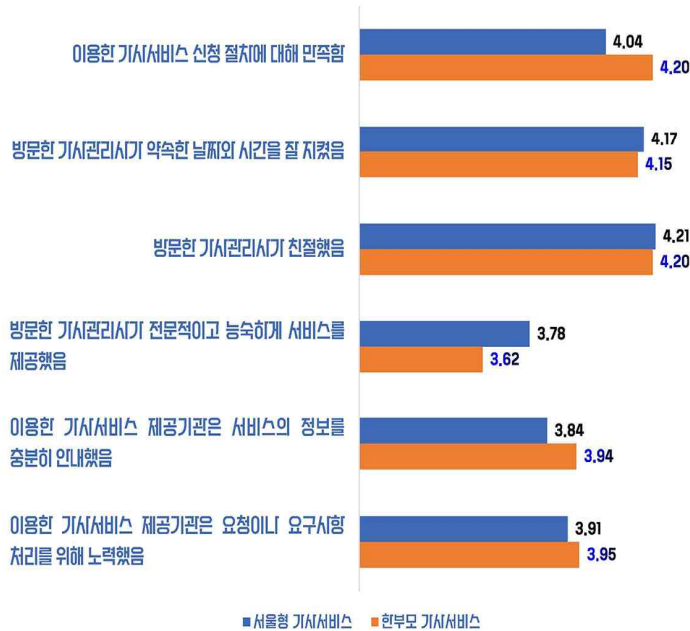
: 적극성과 책임감 부족(63.2%), 집안일 숙련도가 낮음(50.4%)

기대한 만큼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

: 제공되는 기사서비스가 생각했던 것과 다름(67.1%), 원하는 시기에 이용이 어려움(35.1%),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임(33.1%)

서울시 기사서비스 만족도

16



사업별 만족도

-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 기사서비스 지원 만족도가 높으나,
- 가사관리사의 전문성에서는 한부모가족 기사서비스 지원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서비스 항목별

- 가사관리사 전문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 (서울형 3.78, 한부모 3.62)
- 다음으로 기사서비스 제공기관 만족도 낮음 (서울형 3.84, 한부모 3.94)

전체적인 만족도

4.14점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

17

Q. 향후 가사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의향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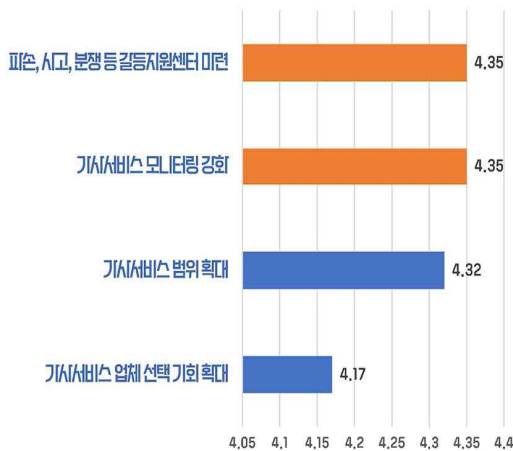
4.56점

가사서비스
계속 이용 의향 있음

- 본인부담 발생시 계속 이용 의사 있음(46.3%)
: 1회 4시간 기준 지불할 수 있는 본인 부담금 최대 금액은 평균 2만 2,400원.
- ➔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 질을 높여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검토 필요

서울시 가사서비스 사업 운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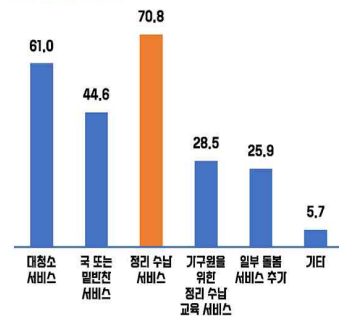
18



<서비스 추가 필요 여부>



<추가 서비스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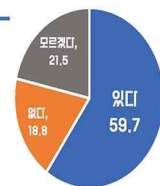


추가서비스 68.7% 필요

정리 수납 서비스 70.8%, 대청소 서비스 61.0%

> 59.7%

추가 서비스 비용이 기본 서비스 비용보다 높게 책정되어도 이용할 의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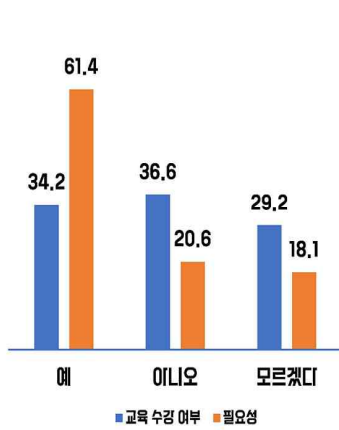


가사서비스 이용자 교육 강화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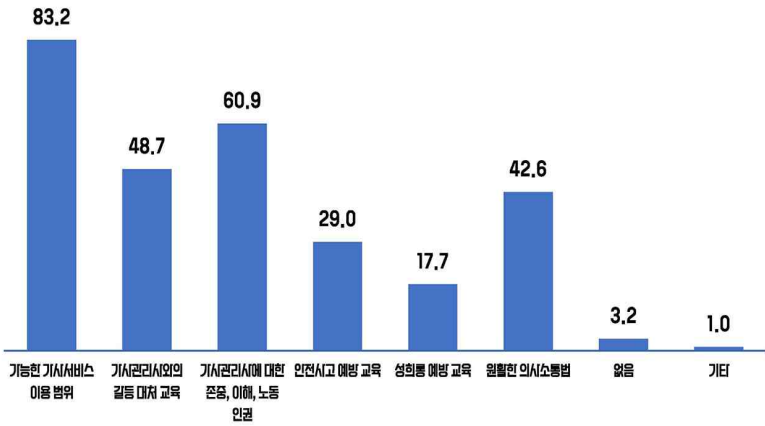
가사서비스 이용자 교육

- 교육 받음(34.2%)
- 교육 필요함(61.4%)



이용자 교육 내용

- 가능한 가사서비스 이용 범위(83.2%)
- 가사관리사 존중, 이해, 노동 인권(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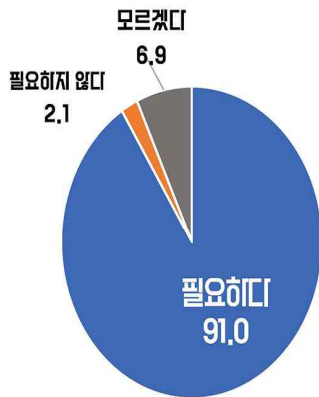


가사관리사 교육 강화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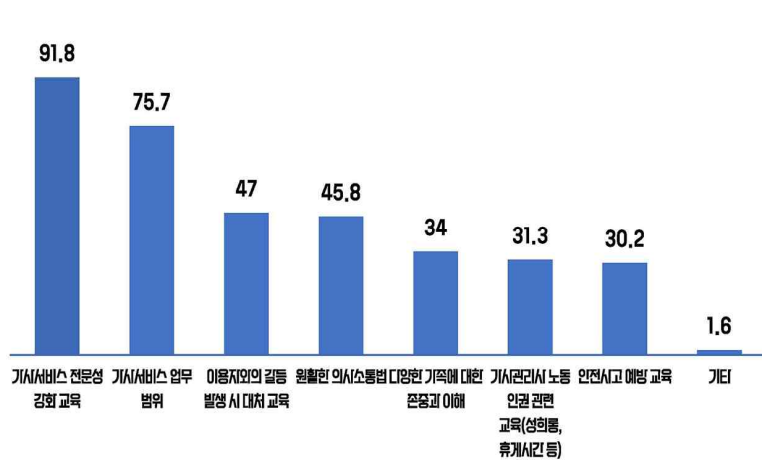
가사관리사 교육

- 필요성(91.0%)



가사관리사 교육 내용

- 가사서비스 전문성 강화(91.8%), 업무 범위(75.7%)



서울시 가사관리사 일,경험 및 정책 수요조사

21

SURVEY

조사 대상: 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사업 참여한 가사관리사 177명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내용: - 전반적인 노동 이력 현황(가사, 돌봄 분야 경력 여부 등)

- 가사서비스 제공 현황: 고용 형태, 근로 실태 등

- 가사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 근로환경 변화, 전반적인 만족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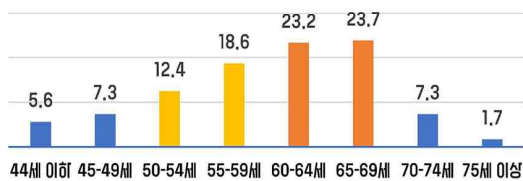
- 정책 요 및 발전 방안

서울시 가사관리사 응답지 특성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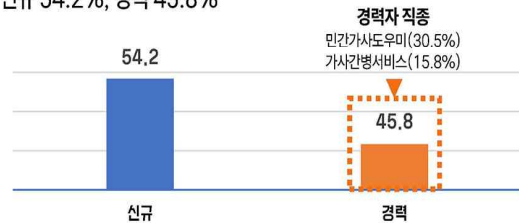
연령 (단위:%)

60대 46.9%, 50대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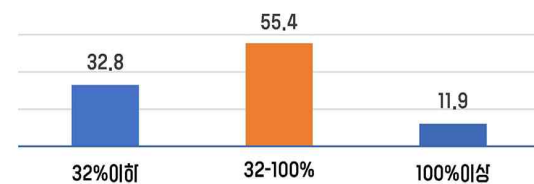
가사돌봄 분야 경력 (단위:%)

신규 54.2%, 경력 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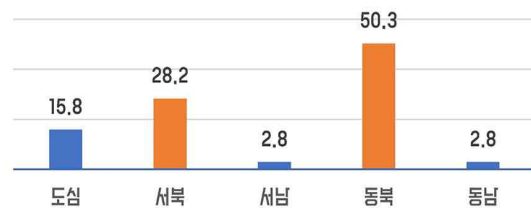
소득

중위소득 32~100% 구간 55.4%



권역

동북권 50.3%, 서북권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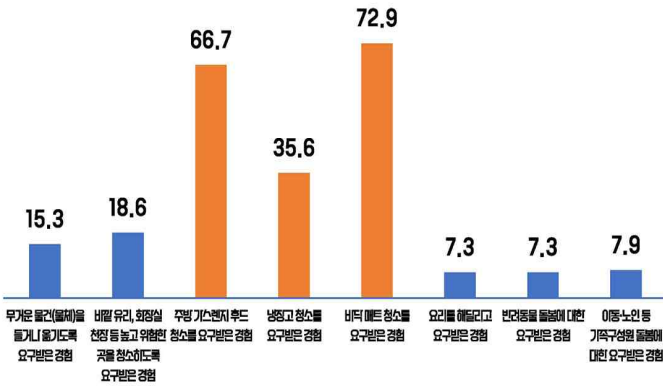
가사서비스 업무 범위 관련 요청 및 대응

23

가사서비스 제외 업무 중 요청 받은 업무

바닥 매트 청소 72.9%, 가스레인지 후드 청소 66.7%, 냉장고 청소 35.6% 등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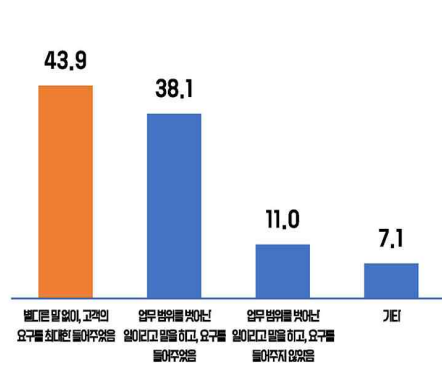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받은 업무 요청>



대응

수용 43.9%, 업무 범위 설명 후 수용 38.1%

<업무 요청에 대응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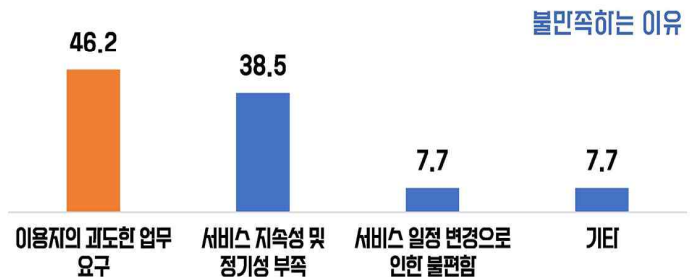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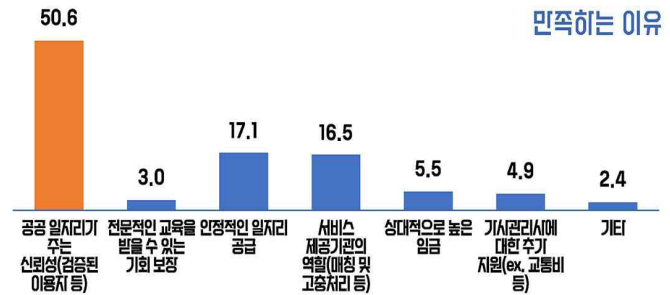
서울시 가사관리사의 사업 만족도

24

서울시 가사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가사관리사의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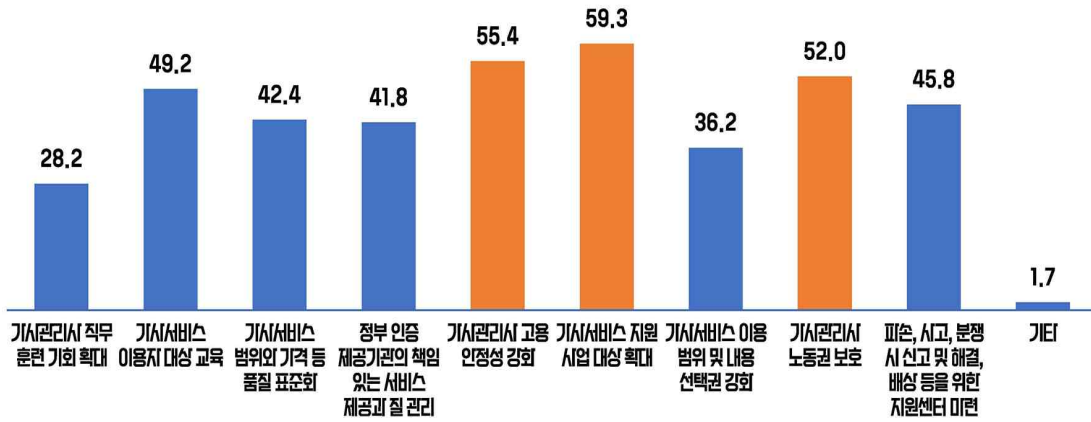
- 만족 이유, 공공일자리 신뢰성 50.6%
- 불만족 이유, 과도한 업무 요구 46.2%
- 서비스 지속성 및 정기성 부족 38.5%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 개선

25

가사서비스 고용환경 관련 사업 개선 방안 수요 높게 나타남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59.3%, 가사관리사 고용인정성 강화 55.4%,
 가사관리사 노동권 보호 52.0% 등



서울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면접조사

26

SURVEY

조사 대상: 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9개 기관

조사 방법: 일대일 심층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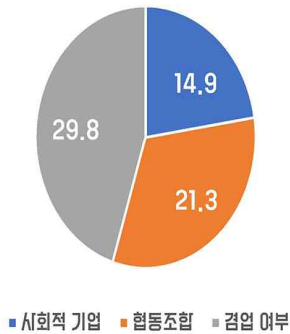
조사 내용: - 전반적인 기관 현황, 서울시 가사서비스 참여 계기
 - 사업 참여 현황 및 어려움 등
 - 서울시 가사서비스 발전방안 등

서울시 기사서비스 인증기관 현황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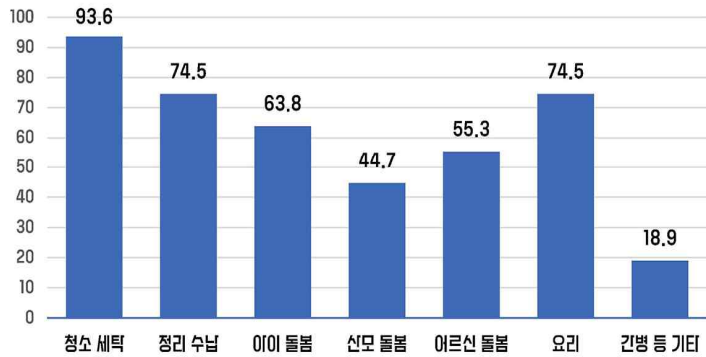
2024. 9월 말 기준 서울시 기사서비스 인증기관 수 : 47개(전국 110개)

유형
겸업 29.8%, 협동조합 21.3%



제공서비스

청소, 세탁 93.6%, 요리 74.5%, 정리 수납 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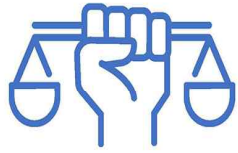


기사서비스 제공기관 정책 제언

28

서울시 기사서비스 사업 운영 개선방안을 포함, 장기적으로 기사서비스 인증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까지 제안됨

기사서비스 사업 운영 효율화	제공기관 선정 : 자치구별 업체 선정,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선정 기간 연장
	이용자 선정 기준 : 자기부담금 책정, 소득기준 상향 (특히 맞벌이)
	서비스 제공과정 : 가구별 지정 매칭, 서비스 제공 간격 주 1회로 고정, 신청 및 매칭 시스템 개선, 기사서비스 제공 시간 현실화
기사관리사 전문성 강화 및 경력 개발	품질 개선 : 기사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표준화 교육
	품질 개선 : 기사서비스 세분화
	기사관리사 권익 보호 : 인식 개선, 교통비 지원, 고객센터 설치 등
서비스 이용자 책임성 강화	이용자 대상 사전 교육 강화
	기사서비스 업무 명확화, 상세화
	기사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 준비 사항 안내 (냉방, 청소용품 등)



**서울시
가족 일생활균형 지원**

서울시민의 삶과
휴식을 위한 시간 확보

서울시 가족의 적절한
돌봄을 위한 시간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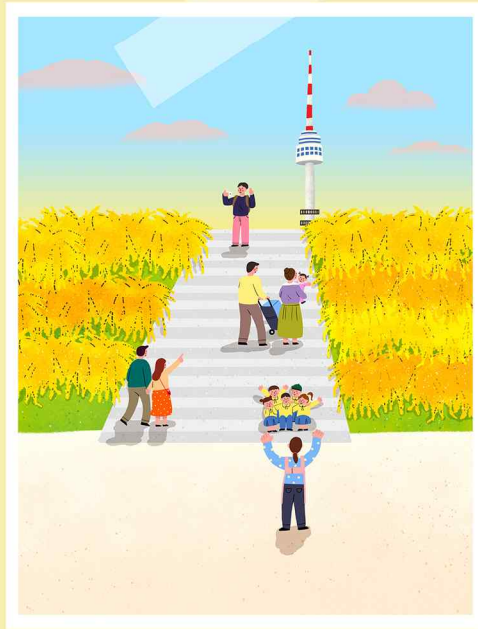


**지속 가능한
서울시 돌봄 경제 구축**

장기적으로 서울시민의 현재와
미래 인구의 양육과 재생산에 기여하는
돌봄 경제 구축을 위해 서울시 가사서비스
발전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임

감시합니다.

서울시가족센터 아버지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사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이현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서울시가족센터 아버지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사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 이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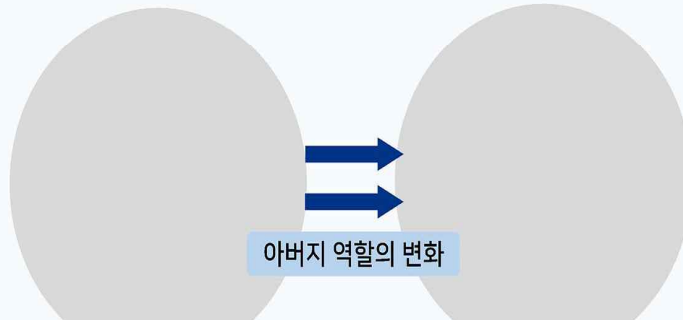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서울시가족센터
서울형 가족정책

❖ 2023 아빠육아달인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연구 개요

- 과업기간: 2023.3. ~ 2023.8. (6개월)
- 수행기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 책임연구자: 이현아(한국방송통신대)
- 공동연구진: 이운경(이화여대) 전은다(고려사이버대) 김유경(송의여대) 김주희(방송대) 이은정(이화여대)
- 과업목적
 -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의 돌봄 기술 습득 지원 및 자녀와의 긍정적 교류를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 개발
 - 신뢰도 높은 가족 교육 지원을 마련하여 남성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확산
- 과업내용
 -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현황 분석
 - 유아기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참여자용 교육 자료 매뉴얼 개발 및 현장 전문가용 운영 매뉴얼 개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아버지 역할이 '일 중심'에서 '일가정 균형 중심'으로 변화
- 이러한 추세는 가정 · 학교 ·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남 (이현아 외, 2017; 이현아, 2020)
 - ✓ 아버지 역할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 남성을 중심으로 나타나, 부부가 동반자적 의식을 갖고 가사와 육아에 함께 참여하는 특징을 보임 (이현아, 김주희, 2021)
 -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8.5%에서 2022년 28.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 (고용노동부, 2024)



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유아기는 의사소통 · 인지 · 운동능력이 급속히 증진되며, 놀이 상호작용에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짐
- 아버지 대상 조사 결과, 양육 기술 습득 프로그램, 자녀와의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양육관련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특히, 자녀와 애착 증진과 자녀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김용훈, 이경숙, 2022)
- 자녀 연령에 따라 아버지 역할이 달라지므로, 연령대에 따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필요함

-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 기술 습득과 자녀와의 상호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함
-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놀이 사례를 함께 개발하여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기, 자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부부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기 등 포함

4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될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
-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기획-설계-실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현장 적용 및 보급 고려
- 프로그램 개발 후 시범사업과 평가회를 통해 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시 효과성 향상



5

2. 프로그램 개발 절차

- 국내 및 국외 관련 프로그램 현황 분석 → 1) 프로그램 초안 구성 → 2) 자문회의 → 3) 전문가 감수 → 4) 프로그램 최종안 개발 → 5) 프로그램 적용과 평가 순서로 진행됨

아빠 육아 달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절차

국내, 국외 관련 프로그램 현황 분석	프로그램 초안 구성	자문회의	전문가 감수	프로그램 최종안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과 평가
국내 및 국외의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분석	아빠육아달인 매뉴얼 및 놀이프로그램 초안 구성	가족센터 담당자 및 유아기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사전질문지 작성 및 자문회의	학계 전문가 3인의 전문가 감수 (서울시 가족센터)	최종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과 만족도조사, 시범사업 평가회 (서울시 가족센터)
2023년 3월-4월	2023년 5월-7월	2023년 8월 (자문회의 : 8월 9일)	2023년 9월 12일 - 10월 13일	2023년 10월	시범사업 : 2023년 10-11월 (평가회 : 11월 30일)

6

3. 프로그램 개발

1) 국내외 프로그램 현황 분석

아버지 참여 프로그램 현황 분석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요구도
① 국내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역할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실제 양육 기술, 자녀발달 이해 중심으로 • '강의 중심' 에서 다양한 매체 사용 및 구성원의 주도적 참여 중심으로 • 부-자녀 활동 및 놀이가 중요요소로 포함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마다 다른 교육 내용 진행 • 다양한 교육 콘텐츠 수요
② 국외 아버지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외활동 및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진행 활발 • 부부관계 및 공동양육에 대한 관심이 강조 • 부-자녀 놀이 및 다양한 활동이 시도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상황에서의 코칭 또는 역할 놀이 • 참여자 간 소통과 체험 방식
	참여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5회기 • 실시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참여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혼자가 아닌 가족 단위 참여 • 10명 이하의 소규모 인원

7

3. 프로그램 개발

2) 프로그램 초안 구성

-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해 총 3회기로 구성하고, 각 차시 별 총 1시간 30분으로 계획
-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교육과 체험(참여)을 결합
- 각 차시별 프로그램에서 아버지 대상 강의와 자녀와 함께 하는 놀이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
 - 유아기 자녀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개발
 - 각 차시별 주제와 연계하여 강의 내용을 적용하고 연습, 훈련할 수 있는 놀이의 개발에 초점
- 유아기 발달 및 아버지 역할, 자녀와 의사소통 훈련, 부부 공동양육을 주제로 설정하고, 각 차시별 놀이 2가지를 개발



8

4.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 초안 구성

아빠 육아 달인 프로그램 초안

	주제	유아기 발달 및 아버지 역할
1차시 : 유아기 우리 아이, 그리고 아버지 역할	내용	1. 양육자로서의 자신감(양육효능감) 2. 유아기 자녀의 영역별 발달특성 3. 유아기 자녀를 위한 양육 태도(온정, 통제)의 점진과 바람직한 양육행동
	놀이 응용	• 아빠와 아이가 놀이 상호작용 가운데 온정과 통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놀이 1) 우리 몸 자석놀이: 사랑과 따뜻함을 표현하고 느끼는 놀이 2) 까막잡기 놀이: 사랑의 표현을 사용하며 규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놀이
2차시 : 아이 말을 잘 듣고 살 달하는 아빠 되기	주제	의사소통 훈련
	내용	1. 아이 행동의 수용성 수준 파악 2.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 3. 문제를 누가 해결할지에 따른 대처 기술의 학습과 실제 적용
	놀이 응용	• 아이와 아빠의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적용할 수 있는 놀이 1) 바람을 후~불어 마음 전달하기: 신체와 얼굴을 움직여 포스트잇을 떨어뜨리는 놀이 2) 차곡차곡, 높이 높이: 재활용품을 무너지지 않도록 높이 쌓는 놀이
	주제	공동양육
3차시 : 함께 하는 육아, 행복한 아빠 엄마	내용	1. 공동양육의 의미와 필요성 2. 공동양육의 하위요인별 원인과 해법 3. 부모 자신을 돌보기
	놀이 응용	• 공동양육의 개념과 의미를 적용, 실천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 1) 이심전심 게임!: 게임 형식으로 아빠와 아이가 서로를 알아가는 놀이 2) 아빠와 한 몸이 되어 보물찾기: 엄마가 숨겨둔 보물을 아빠와 아이가 한 팀이 되어 찾아보는 놀이

9

4. 프로그램 개발

2) 자문회의

- 프로그램 초안을 수정 ·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자문회의 실시
- 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담당자 /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 사전설문지와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

자문회의 사전질문지

구분	내용
센터 현황	1. 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프로그램 평가	2. 본 연구진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 주십시오. 1) 1회기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평가해 주십시오. 2) 2회기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평가해 주십시오. 3) 3회기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평가해 주십시오.
회기운영 고려사항	3. 각 회기는 9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0분 중 60분은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30분은 아버지-자녀 놀이 및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시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 시 고려사항	4. 본 연구진이 개발한 육아기 아버지-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센터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되는 어려움 점	5. 전반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자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표1-5> 아버지 사전질문지

구분	내용
프로그램 참여경험	1.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까?
프로그램 인상 (도움/필요)	2. 본 연구진이 개발한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인상은 어떻습니까? 1) 1회기 '유아기 우리아이, 그리고 부모역할'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2회기 '아이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달하는 아빠 되기'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3회기 '함께 하는 육아, 행복한 아빠 엄마'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느낌 (효과/어려움)	3. 본 연구진이 개발한 놀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1) 본 연구진이 개발한 놀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와 함께 해 본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본 연구진이 개발한 놀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수행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 본 연구진이 개발한 놀이 프로그램 중 자녀와 함께 가장 해보고 싶은 놀이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추가사항	4. 아버지대상 프로그램에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입니까?
센터 고려사항	5. 가족센터에서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10

4. 프로그램 개발

2) 자문회의

- 아버지교육프로그램 진행 경험이 있는 서울시 3개 자치구 가족센터 센터장 3명
-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4명 : 아빠1(5세딸, 9세아들)/아빠2(7세아들)/아빠3(4세딸)/아빠4(7세, 10세아들)

자문회의 주요 내용

구분	감수 내용
가족센터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주제, 순서가 좋음 - 강의 시간을 줄이고 놀이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을 추천함. - 아버지 강의시간 동안 자녀 돌봄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며 자녀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 진행비가 고려되어야 하며, 3회기 중 2회기를 아버지 대상으로 하고, 1회기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대안적 운영방식도 제안함. - 아이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 콘텐츠를 확대했으면 함.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의사소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제시 및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으면 함. - 아빠만이 아닌, 엄마와 함께 하는 육아라는 말이 와 닿으며, 엄마와 아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이 해야 하는지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함. -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놀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놀아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음. - 자녀 연령에 따라 어려운 놀이도 있을 것 같음. -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

11

4. 프로그램 개발

2) 자문회의

프로그램 구성 반영

- 아버지 강의와 자녀와의 놀이 활동 시간 비중 조정
- 강사용 매뉴얼에 용어설명 · 사례 및 예시 추가
- 자녀 연령에 따라 난이도 조절 가능한 놀이 활용 방법 제시
- 3차시 '공동양육' 개념은 부부 공동양육만이 아닌 모든 공동양육자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
 - ✓ 강사용 매뉴얼에서 참여 대상 특성을 고려한 공동양육의 개념 전달 및 강의 진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팁 제공

프로그램 운영 반영

- 차시별 주제와 놀이에서의 적용이라는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아버지 강의와 자녀와의 놀이 활동을 연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각 운영기관의 상황 고려
- 시범사업 운영 시 센터별로 다양한 운영 방식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

12

4. 프로그램 개발

3) 전문가 감수

- 학계전문가 3인을 감수위원으로 선정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감수 진행

전문가 감수 주요 내용

구분	감수 내용
전반	- 매뉴얼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현장에서 바로 수행되기 적절하다고 보여짐. - 각 차시 강의 및 놀이의 연결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놀이목표를 강의와 연결하여 목표 순서 변경 및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 - 참여 대상, 회기당 소요시간, 차시별 강의와 놀이 교육의 진행 방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함.
기술방법	- 놀이 방법에서 도입, 전개, 마무리에 기술된 아버지의 발화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자녀와 놀이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언어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자녀의 참여를 어떤 표현으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 추가 제안 - 놀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방법 제안 등 놀이세션 진행방식의 포함이 필요함.
놀이 구성 및 응용	- 놀이제목에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주요 요소 추가] 및 [놀이 제목 축약]에 대한 보완 필요 (예시) [온정과 통제] 까막잡기 놀이

13

4. 프로그램 개발

3) 전문가 감수

프로그램 반영

- 각 차시별로 강의 주제 및 내용과 놀이 목표의 연결성 강화
- 각 차시별 도입, 전개, 놀이응용, 마무리로 구성하고 각각의 소요시간 제시 및 강의 · 놀이의 진행 방법 기술 보완
- 놀이 교육자료에서 놀이 제목에 [온정], [온정과 통제], [의사소통], [양육 책임], [양육 분담]과 같이 주요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강의 주제와 연결하여 놀이가 갖는 의미 명시
- 각 놀이별로 상세한 놀이방법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

14

4. 프로그램 개발

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놀이중심 교육 프로그램 최종안

1차시

“유아기 우리 아이, 그리고 아버지 역할”

- 1차시는 양육효능감의 필요성과 발달의 네 가지 영역 별로 유아기 자녀의 발달특성을 이해하도록 내용 구성
- 자신의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온정과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함

1차시 : 유아기 우리 아이, 그리고 아버지 역할	주제	유아기 발달 및 아버지 역할
	목표	1. 유아기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2.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한다. 3. 양육태도를 점검하고 유아기 자녀에게 적합한 양육행동을 이해한다.
	활동 내용	
	도입 (15분)	1. 강사, 참가자 간 인사를 나눈다. 2. 프로그램 전체의 개요 및 1회기 내용을 소개한다.
	전개 (50분)	1. 양육자로서의 자신감(양육효능감)을 가질 필요성을 이해한다. (10분) 1) 양육효능감을 위해 양육지식, 기술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2) 양육지식, 기술, 양육효능감이 아버지로서의 행복 및 만족감, 효과적인 양육,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이해한다. 2. 유아기 자녀의 발달특성을 이해한다. (20분) 1) 발달의 네 가지 영역을 이해한다. 2) 발달의 네 가지 영역과 관련하여 영아기~유아기의 발달적 흐름을 살펴본다. 3) 발달의 네 영역을 통해 아버지의 발달 역시 살펴본다. 3. 유아기 자녀를 위한 양육 태도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이해한다. (20분) 1) 양육태도의 두 차원(온정, 통제)을 이해하고 본인의 양육특성을 점검한다. 2) 온정과 통제를 적절하게 표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놀이 응용 (20분)	1. 아빠와 아이가 놀이 상호작용 가운데 온정과 통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 [통제] 아빠와 아이가 사랑으로 킥킥! 우리 몸 자식놀이, 사랑과 따뜻함을 표현하고 느끼는 놀이 2) [온정과 통제] 우리 아빠와 우리 아이의 다양한 목소리를 찾아서! 까막잡기놀이: 사랑의 표현을 사용하며 규칙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놀이	
마무리 (5분)	1. 양육 지식, 기술을 익히는 것은 자신 있고 행복한 양육자의 삶을 영위하고,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이끄는 데 필수적임을 이해한다. 2. 한 주 동안 네 가지 발달 영역 및 온정과 통제의 적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한다.	

15

4. 프로그램 개발

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놀이중심 교육 프로그램 최종안

2차시

“아이 말을 잘 듣고, 잘 말하는 아빠 되기”

- 2차시는 아이의 행동 중 수용 가능한 행동과 가능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여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 파악
- 문제 해결에서 적절한 대처기술(반영적 경청 및 나-전달법)이 다름을 알고, 각 기술을 적용

2차시 : 아이 말을 잘 듣고, 잘 말하는 아빠 되기	주제	의사소통 훈련
	목표	1. 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아이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아이 행동을 구분한다. 2. 아이 행동으로 누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한다). 3. 문제를 누가 해결할지에 따라 대처 기술이 다름을 알고, 각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활동 내용	
	도입 (10분)	1. 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본다. 2. 아이의 힘든 문제를 누가 해결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는 어떠했는지 점검한다.
	전개 (50분)	1. 아이 행동의 수용성 수준을 파악한다. (10분) 1)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중에서 부모인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행동과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구분한다. 2) 이전에 수용했던 행동을 수용할 수 없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2.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한다. (15분) 1) 아이 행동으로 누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문제를 누가 해결할지에 따라 대처 기술이 다름을 알고, 각 기술에 대해 학습하여 실제 생활에 적용한다. (25분) 1) 아이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은 부모가 수용할 수 있으며, 이때 부모는 반영적 경청의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를 도와준다. 2) 아이 행동으로 인해 부모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놀이 응용 (20분)	1. 아빠와 아이의 놀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서 반영적 경청과 나-전달법을 적용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1) [의사소통] 얼굴과 몸을 뽀록뽀룩! 바람을 후~불어 마음 전달하기: 신체와 얼굴 근육을 움직여 포스트잇을 떨어뜨리는 놀이 2) [의사소통] 사랑하는 마음 담아 자극차극, 놀이 놀이: 재활용품을 무너지지 않도록 높이 쌓는 놀이	
마무리 (10분)	1. 의사소통 기술은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아이가 해결할 문제를 부모가 개입하여 해결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점검하여, 부모와 아이는 서로 분리된 존재임을 강조한다.	

16

4. 프로그램 개발

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놀이중심 교육 프로그램 최종안

3차시

“함께 하는 육아, 행복한 아빠 엄마”

- 3차시는 아직 생활할 공동양육의 정확한 개념과 필요성을 먼저 제시
- Feinberg(2003)의 모형을 토대로 공동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모색해보도록 함
- 양육자로서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 강조

주제	공동양육
목표	1. 공동양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안다. 2.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으로 공동양육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는다. 3. 양육자로서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생활에 적용한다.
활동 내용	
도입 (10분)	1. 공동양육의 의미와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자신이 생각하는 공동양육의 의미와 공동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른 아버지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진개 (50분)	1. 공동양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확인한다. (15분) 1) 공동양육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2) 공동양육이 자녀발달, 부모역할 및 부부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다. 2. 공동양육의 해법을 찾아본다. (20분) 1) 자신과 배우자의 공동양육 상황을 자가진단을 통해 점검한다. 2) 공동양육의 하위요인으로 부부 공동양육의 어려움과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3) 공동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3. 부모 자신을 돌보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고 생활에 적용한다. (15분) 1) 양육자로서의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2)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본다.
놀이 응용 (20분)	1. 아빠, 엄마가 아이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공동양육의 개념과 의미를 적용, 실천해 본다. 1) [양육 책임] 아빠와 나, 서로 얼마나 아나요? 이심전심 게임: 게임 형식으로 아빠와 아이가 서로를 알아가는 놀이 2) [양육 분담] 아빠와 한 몫이 되어 보물찾기 해보아요!: 엄마가 숨겨둔 보물을 아빠와 아이가 한 몫이 되어 찾아보는 놀이
마무리 (10분)	1. 공동양육의 초점은 배우자 간 양육 관련 노동의 분담을 넘어서 양육자로서의 책임의 공유에 있으며, 공동양육은 공동양육자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재확인한다. 2. 공동양육의 궁극적 목적은 양육을 담당하는 부모와 자녀 모두의 행복에 있음을 강조한다.

17

4. 프로그램 개발

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놀이중심 교육 프로그램 최종안

차시별 놀이 응용

- 각 차시별로 주제를 적용한 놀이를 두 가지씩 개발, 제시
- 주요개념(1차시 온정과 통제, 2차시 의사소통, 3차시 양육책임과 양육분담)이 놀이응용에 적용되도록 함

1차시 ▪ 우리 몸 자석 놀이와 까막잡기 놀이는 신체놀이 · 놀이규칙을 통해 자녀의 발달과정을 점검하고 온정과 통제를 실천해보도록 함

2차시 ▪ 포스트잇 떨어뜨리기 놀이와 재활용품 쌓기놀이는 반영적 경청 및 나-전달법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함

3차시 ▪ 이심전심 놀이와 아빠와 함께 보물찾기 놀이는 양육의 책임자로서 자녀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공동양육자와의 양육분담과 지지를 놀이에서 실천하도록 함

18

4. 프로그램 개발

5) 개발된 프로그램 적용과 평가



19

4. 프로그램 개발

5) 개발된 프로그램 적용과 평가

- 전문 강사 38명에 대한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연구진과 양성된 전문 강사들이 참여하여 서울시 소재 12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317명의 아버지와 자녀를 대상으로 총 21회기의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됨
-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및 보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함
 - ✓ 현장 상황 및 강사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프로그램 매뉴얼 상의 내용과 시간을 준수할 것을 참여 센터와 강사들에 요청
 - ✓ 서울시가족센터 담당자들이 프로그램 진행 시 5 회의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

참여자 만족도 조사

구분	문항	평균 (5점 만점)
1차시	프로그램 내용은 자녀의 다양한 발달영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78
	프로그램 내용은 양육에 있어 적절한 온정과 통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78
2차시	프로그램 내용은 자녀 감정을 파악하여 자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4.79
	프로그램 내용은 나의 감정과 생각을 자녀에게 잘 말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4.83
3차시	프로그램 내용은 공동양육자로서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97
	프로그램 내용은 배우자(공동양육자)와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88

20

4. 프로그램 개발

5) 개발된 프로그램 적용과 평가

- 시범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수행기관(서울시 자치구 가족센터) 실무자와 강사, 연구진 및 사업 운영기관(서울시가족센터) 관계자 등 총 24명이 참여하여 평가회를 진행
 - 평가회에서 공유된 의견은 연구진에 의해 프로그램 및 강사용 매뉴얼에 반영
 - 서울시가족센터 차년도 본 사업 추진 계획에 반영

평가회 의견

구분	항목	세부내용
이론 교육	좋았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론-실습의 연계성 자가진단 척도 제공의 유용성 정확 정보 제공 집근방법의 특이점
	보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속성 확보 필요 대상 확대 시간 구성
	좋았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적인 실습 놀이도구 관련 정보제공 자녀 연령대를 고려한 콘텐츠 구성 필요
	보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 시간 추가 확보 필요 놀이 응용 교육자료 제공

21

4. 프로그램 개발

5) 개발된 프로그램 적용과 평가



- 프로그램과 매뉴얼에서 각 놀이 활동의 연령별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가정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형제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놀이 방법 추가
- 차년도 사업에서 놀이의 발달적 의미와 응용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배포 제안



- 시간에 대한 의견(다회기 교육에 대한 요청, 공동양육 주제에 대한 부모 모두의 참여 등)을 프로그램 운영에 종합적 반영 강조

22

5. 결론 및 제언

- 아버지 대상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목적성과 현장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별된 노력들
- ✓ 연구진-서울시 담당 공무원-서울시가족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
- ✓ 프로그램 대상자인 유아기자녀 아버지의 요구, 프로그램 운영자인 지역 가족센터 담당자의 요구를 반영
- ✓ 프로그램 차시별 목적에 부합하는 놀이 적용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경험이 있는 연구진과 함께 개발
- ✓ 연구진이 직접 서울가족학교 강사교육 실시, 실제 시범사업에 강사로 참여하여 참여자 반응과 프로그램 고려사항 등 피드백
- ✓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해 센터 담당자, 서울가족학교 전문강사,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반영

본 프로그램의 특징 -지역가족센터 담당자

- ① 각 차시별 교육 내용에 놀이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함
- ②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특성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함
- ③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과 보급까지 고려하여 개발됨

본 프로그램의 의의

- 학문적** •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개발 관련 자료 축적
- 정책적** • 지역사회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와 아버지 참여 활성화
- 교육적** • 가족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유관기관의 활용가능한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

23

“아빠육아 달인 프로젝트” 시범 운영



https://www.youtube.com/watch?v=EuJ_wZKG-60&t=7s



24

서울시가족센터, 2024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개시



번3동 공동육아나눔터

아빠랑 신나게 놀자 육아달인

대상: 4-7세 자녀의 남성 양육자 8가정

내용: 자녀의 소통 및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 증진 놀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매뉴얼 제공

놀이키트 제공

일정	내용	비고
1회차	9월 30일(월)~10월 6일(일)	유아기 자녀를 둔 4-7세 남성 양육자를 위한 e-Learning 기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아동교육, 21(1), 5-20
2회차	10월 7일(월)~10월 13일(일)	아동양육을 할당하고 실천하는 아버지(가), 43(7), 437-459
3회차	10월 19일(일) 11시~12시	아빠 육아 달인 놀이키트 제공

신청방법: 강북구가족센터 홈페이지 보호자, 자녀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장소: 번3동 공동육아나눔터 (오전 10:00, 반동차 30분 18)

문의: 070-7404-2567

서울시가족센터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다양한 자녀와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남이들 매개한 남성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 1. 프로그램 구성**
차시별 이론과 놀이방법으로 내용 구성
 - 차시1: 소개와 오리엔테이션
 - 차시2: 아이 발달 단계와 양육하는 아버지
 - 차시3: 다양한 양육 방법 소개
- 2.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만나보는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아빠육아달인 프로그램은 다양한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가능하며 참여도 높을 수 있습니다.
- 3.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보는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아빠육아달인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청처: 번3동, 동대문구, 동양구

2024 가족정책 공동선언서 발표생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참고 문헌

국기정책연구원. (2024). 5. 너도 줄은 아버지다. (24-67).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82921184>에서 인용.

권기(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 아버지의 자녀교육 역량향상 촉진을 위한 e-Learning 기반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아동교육*, 21(1), 5-20

고영진, 송승민(2022). 아버지-유아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효과검증. *한국가족복지학*, 27(4), 437-459. <https://doi.org/10.13049/kjfw.2022.27.4.5>

고영진, 송승민, 이복선(2024). 아빠를 위한, 아빠에 의한, 아빠에 대한 육아-유치장바기 기동한 (이복선). <https://www.facebook.com/parentingyou>에서 인용.

이민희, 김미정(2014). 경기도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중심으로. 수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미정(2020). 아버지-자녀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가족생활주기 관점의 접근을 바탕으로. 인문사회 21, 11(4), 1649-1664. <http://dx.doi.org/10.22143/HSS21.11.4.116>

김용준, 이강숙(2022). 아버지 양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관련 인식 및 요구도 연구. *영양아동영양학연구*, 15(2), 73-100. <http://dx.doi.org/10.47801/KJNH.15.2.4>

김희정 (202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Asia Counseling and Coaching Review*, 6(1), 91-100.

김지혜(2005). 유아의 놀이성이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2012). 행복한 아버지 되기 훈련프로그램의 아버지 및 행복의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보민(2019). 저소득층 아버지 2019-1: 아버지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서울: 한국보건복지연구원

보건복지부. (2023). 아버지 양육지원센터(2024). 초·중·고등학교 학업 진로지원: 100인의 아버지 13기 공식 커뮤니티. <https://cafa.naver.com/motherpage/usa/1>에서 인용.

서울시가족센터(2023). 아빠육아달인 프로젝트 성과사례집. 서울: 서울시가족센터.

서울유아종합지원센터(2024). 이마트와 아바교실. https://seoul.childcare.go.kr/seoul/d2_20000/d2_34100/d2_34112.js.pptx에서 인용.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5). 서울 교육 불균형-유아교육진흥원. *출판: 아빠 육아 달인 프로젝트* 실시. <https://blog.naver.com/seoulued/2012/2203674496388>에서 인용.

손수호(2015). 영유아 아버지의 아버지역할론. *교육연구총서*, 23(3), 197-220.

신유진(2009). 다양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IJACE)*, 12(3), 47-72. <http://dx.doi.org/10.22955/ajce.12.3.200908.47>

신영진, 김용준(2021). 전 세 영미의 맞벌이 부모 등반반려 불만도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부모의 언어적 행동, 반응성 및 공동양육을 중심으로. *아동학보*, 42(2), 261-277. <http://dx.doi.org/10.5723/kjcs.2021.42.2.261>

양진희(2022).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참여 부모 프로그램의 아버지 놀이신념과 의사소통능력 및 역할관측도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 21*, 13(1), 2235-2250. <http://dx.doi.org/10.22143/HSS21.13.1.158>

양정기(2021).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양정기(2023). 2023년 가족상담센터. 서울: 여성가족부.

이성희(2018). SNS 기반 아버지 역할 증진 프로그램의 장애 유아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역할 관측도. 아버지-유아 상호작용 행동,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아빠 육아 달인*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인, 박희, 김선정(2017).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요구 분석. *한국가족정책연구*, 31(2), 319-348. <http://dx.doi.org/10.18398/kjfps.2017.31.2.319>

이혜인(2018).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현황 및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정책연구*, 22(3), 61-76. <https://doi.org/10.22626/kjfps.2018.22.3.004>

이혜인(202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버지대상 프로그램 효과 분석. *현대사회학*, 10(2), 143-175. <http://dx.doi.org/10.35281/jcms.2020.05.10.2.143>

이혜인, 김주희(2021). 저소득 가정 아버지의 아버지역할론: 아이를 위한, 아이에 의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4), 71-86. <http://dx.doi.org/10.22628/kjfps.2021.25.4.006>

정유진, 조희준(2023).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참여 아버지들의 경험과 행복: 유아교육학술지, 27(1), 229-256. <http://dx.doi.org/10.32349/ECEA.2023.27.1.229>

정재호, 김희정, 김희정, 유은영(2010). 아버지의 스트레스 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유아 자아존중감 및 아버지 양육역할의 변화. *유아교육연구*, 14(5), 349-365.

차진주, 김지혜(2020). 아버지의 가치 신념이 유아의 자존감, 공격성, 투쟁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5(5), 189-219. <http://dx.doi.org/10.20437/KOACE25-5-07>

최성영, 조희, 손기현(2020). 나 아이를 위한 강국연구 서 울: 해남

최진희, 김현정(2020). 아버지 프로그램의 국가지원현황을 위한 사례 연구: 서울 유아 교육진흥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가족학연구*, 51(3), 107-145. <http://dx.doi.org/10.21478/family.32.202009.004>

동계정(2022). 2022년 새학기 저소득층 부모교육사업 평가 및 연구 교육 현황.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300&bid=211&act=view&isn=418841>에서 인용.

한영진, 김용준(2016). 두란위-아버지대상 참여자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지평*, 8(3), 469-492.

홍길희, 정영희(2007). 아버지 역할론을 위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유아교육*, 11(2), 6-24.

홍유진, 최희정(2020). 아버지의 가치 신념이 유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빠 육아 달인*, 20(20), 2020.04.1. 2.103

Anderson, E. A., Kohler, J. K., & Lefevre, B. L. (2002). Low-income fathers and "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participants' experiences. *Family Relations*, 51(2), 148-155.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2.00148.x>

Anderson, S., Alier, T. B., Ptery, K. W., & Roggman, L. A. (2019). "Helping us find our own selves": Exploring father-role construction and early childhood programme engage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5(3), 360-376. <https://doi.org/10.1080/03004430.2014.924112>

Ahrons, C. R. (1981). The continuing coparental relationship between divorced spous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1(3), 415-428. <https://doi.org/10.1111/j.1939-0025.1981.tb01390.x>

Bauman, D. C., & Wesserman, K. B. (2010). Empowering fathers of disadvantaged preschooler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preparing their children for literacy success at school.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7(5), 363-370. <https://doi.org/10.1007/s10643-009-9367-3>

Belsky, J., Crnic, K., & Gable, S. (1995). The determinants of coparenting in families with toddler boys: Spousal differences and daily hassles. *Child development*, 66(3), 629-642.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5.tb00894.x>

Block, L. S., & Rowlett, L. A. (2008). The WIAATCH DOGS program: a case study of parent involvement implemented at one school site.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Campbell, D., & Palm, G. (2004). Group parent education: Promoting parent learning and support. Thousand Oaks, CA: Sage.

Cowan, C. P., Cowan, P. A., Cohen, N., Pruett, M. K., & Pruett, K. (2008). Supporting fathers' involvement with kids. In J. D. Berrick & N. Gilbert (Eds.), *Raising Children: Emerging needs, modern risks, and social responses* (pp. 44-8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참고 문헌

- Emery, R. 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2), 310-330. <https://doi.org/10.1037/0033-2909.92.2.310>
- Elder, G. H., Jr., Eccles, J. S., Ardelt, M., & Lord, S. (1996).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3), 771-784. <https://doi.org/10.2307/353931>
- Fagan, J., & Stevenson, H. C. (2002). An experimental study of an empowerment-based intervention for African American Head Start fathers. *Family Relations*, 51(3), 191-198.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2.00181.x>
- Feinberg, M. E. (2003). The internal structure and ecological context of coparenting: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3(2), 95-131.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302_01
- Feinberg, M. E., & Kan, M. L. (2008). Establishing family foundations: Intervention effects on coparenting, parent/infant well-being, and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2), 253-263. <https://doi.org/10.1037/0893-3200.22.2.253>
- Flanders, J. L., Leo, V., Paquette, D., Pihl, R. O., & Séguin, J. R. (2009). Rough-and-tumble play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on: an observational study of father-child play dyads.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5(4), 285-295. <https://doi.org/10.1002/ab.20309>
- Flanders, J. R., Simard, M., Paquette, D., Parent, S., Vitaro, F., Pihl, R. O., & Séguin, J. R. (2010). Rough-and-tumble play and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A five-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5, 357-367. <https://doi.org/10.1007/s10896-009-9297-5>
- Fuerts, J. S., & Fuerts, D. (1963). Chicago experience with an early childhood program: The special case of the child parent center program. *Urban Education*, 28(1), 69-96. <https://doi.org/10.1177/00420856028011006>
- Giddens, V. L., & Rathemeyer, R. K. (2001). *Bay Area Fatherhood Initiatives: Patterns and Possibilities*. Philadelphia, PA: The National Center on Fathers and Families(NCOF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Hayes, D., Jones, D. A., Silverstein, L. B., & Auerbach, C. F. (2010). In their own words: Early Head Start father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1(4), 241-250. <https://doi.org/10.1037/a0021036>
- Holmes, E. K., Egginton, B. R., Hawkins, A. J., Robbins, N. L., & Shafer, K. (2020). Do responsible fatherhood programs work? A comprehensive meta-analytic study. *Family Relations*, 69(6), 967-982. <https://doi.org/10.1111/fare.12435>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 (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nd ed.). New York: Longman.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 (2005).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Boston: Pearson
- John, A., Haliburton, A., & Humphrey, J. (2013). Child-mother and child-father play interaction patterns with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483-497. <https://doi.org/10.1080/03004430.2012.711595>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https://doi.org/10.2307/1129596>
- McHale, J. P., Kuersten-Hogan, R., & Rao, N. (2004). Growing points for coparenting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 221-234. <https://doi.org/10.1023/B:JADE.0000035629.29960.ed>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 (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nd ed.). New York: Longman. Johnson, J. E., Christie, J. F., & Wardle, F. (2005).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Boston: Pearson
- John, A., Haliburton, A., & Humphrey, J. (2013). Child-mother and child-father play interaction patterns with preschooler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483-497. <https://doi.org/10.1080/03004430.2012.711595>
- MacDonald, K., & Parke, R. D. (1984).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4), 1265-1277. <https://doi.org/10.2307/1129596>
- McHale, J. P., Kuersten-Hogan, R., & Rao, N. (2004). Growing points for coparenting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1, 221-234. <https://doi.org/10.1023/B:JADE.0000035629.29960.ed>
- Penner-Brick, C., Burgess, A., Eggerman, M., McAllister, F., Pruett, K., & Lockman, J. F. (2014). Practitioner review: engaging fathers-recommendations for a game change in parenting interventions based on a systematic review of the global evid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5(11), 1187-1212. <https://doi.org/10.1111/jcpp.12280>
- Paquette, D. (2004). Theorizing the father-child relationship: Mechanisms and developmental outcomes. *Human development*, 47(4), 193-219. <https://doi.org/10.1159/000078723>
- Paquette, D., Boré, C., Turcotte, G., Dubéau, D., & Bouchard, C. (2000). A new typology of fathering: Defining and associated variable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9(4), 213-230. [https://doi.org/10.1002/1522-7219\(200012\)9:4<213::AID-ICD233>3.0.CO;2-0](https://doi.org/10.1002/1522-7219(200012)9:4<213::AID-ICD233>3.0.CO;2-0)
- Parke, R. D. (1996). *Fatherhood* (Vol. 33).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otter, C., Walker, G., & Keen, B. (2012). Engaging fathers from disadvantaged areas in children's early educational transitions: A UK perspective.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10(2), 209-225. <https://doi.org/10.1177/1478718X12442065>
- Rienks, S. L., Wadsworth, M. E., Markman, H. J., Engholm, L., & Moran Etter, E. (2011). Father involvement in urban low-income fathers: Baseline associations and changes resulting from preventive intervention. *Family relations*, 60(2), 191-204. <https://doi.org/10.1111/j.1741-3729.2010.00642.x>
- Ray, K. M., & Dyson, O. (2010). Making daddies into fathers: Community-based fatherhood programs and the construction of masculinities for low-income African American 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1-2), 139-154. <https://doi.org/10.1007/s10464-009-9282-4>
- Self-Brown, S., Osborne, M. C., Lai, B. S., De Veause Brown, N., Gishween, T. L., & Adams, M. C. (2017). Initial findings from a feasibility trial examining the SafeCare Dad to Kids program with marginalized fath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32(8), 751-766. <https://doi.org/10.1007/s10896-017-9840-5>
- Shaffer, D. R., & Kipp, K. (201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9th ed.). Belmont, MA: Cengage Learning.
- Sheppard, V. B., Sims-Boykin, S. D., Zambrana, R. E., & Adams, I. (2004). Low-income African American father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in a fatherhood support program.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es-21(1), 30-50. <https://doi.org/10.1177/1936724404210103>
- Weir, L., & Ahnert, L. (2022). Parent-child play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Are fathers specia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6(3), 416-426. <https://doi.org/10.1037/fam0000933>
- Weikart, D. P. (1978). *The Ypsilanti Perry Preschool Project: Preschool Years and Longitudinal Results Through Fourth Grade*. Ypsilanti, MI: High/Scope Press.
- Weison, R. E., Obure, R., Omokaro, P., Salihi, H. M. M., Berry, E. L., Austin, D. A., & Christner, J. G. (2019). Effectiveness of a 24/7 Dad® curriculum in improving father involvement: Profiles of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and AIDS*, 9(1), 34-41. <https://doi.org/10.21106/ijmca.338>
- Drinz, E., Brandão, T., Monteiro, L., & Verissimo, M. (2021). Father involvement during early childhood: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13(1), 77-99. <https://doi.org/10.1111/jftr.12410>
- Drinz, E., Brandão, T., & Verissimo, M. (2023). Father involvement during early childhood: A systematic review of qualitative studies. *Family Relations*, 72(6), 2710-2730. <https://doi.org/10.1111/fare.12868>

토론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저출생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이운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 소장

김소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서울 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 운 경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1 한국사회 돌봄 지원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의 돌봄경험’

- 비록 돌봄 지원 인식과 관련된 문항이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대한 인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부모로서 경험한 한국 사회 ‘아동’ 돌봄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 연구는 부모가 일상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동 돌봄이 한국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돌봄기관의 유형(민간·가정시설 M=3.21, SD=.88), 국공립·법인·직장 시설(M=3.36, SD=.83)
 - 돌봄 기관에 만족함(M=3.43, SD=.80), 돌봄기관에 불만족함(M=2.83, SD=.90)
 - 사회적 자본(지역사회 지인 또는 모임)의 여부: 있음(M=3.38, SD=0.86), 없음(M=3.18, SD=0.85)
 - 취업모(M=3.38, SD=0.81)와 비취업모(M=3.15, SD=0.88)
- 직접적 돌봄경험이 부모의 한국사회 돌봄 지원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돌봄과 관련된 서울 부모의 다양한 경험에 주목하고, 이를 면밀히 고려한 정책적 접근을 취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서울 부모의 인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은 돌봄정책 자체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돌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출산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될 수 있음. 본 심포지엄의 ‘2024 서울가족서베이 하이라이트: 탄생응원 서울’ 발표에 의하면 비혼 및 무자녀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사회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높은 점수를 보임. 즉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은 나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임. 그러나 한국사회의 돌봄 지원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영유아기 부모들의 직접적 돌봄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의 수요자인 부모의 돌봄 일상에 주목하며 돌봄과 출산 관련 정책을 보다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부모의 돌봄과 관련한 직접적 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 가지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첫 자녀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백지희, 2021)가 후속출산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돌봄 여건이 불안정하거나 돌봄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이 부모의 높은 스트레스, 우울 등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도 보고되고 있는 것(Pilarz & Hill, 2017; Press et al., 2006)과도 일관적인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영유아기 첫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업모 집단에서 부부공동양육 수준이 높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이아영, 이운경, 2024)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즉, 가정 내, 가정 외에서 자녀를 보다 용이하게 양육하는 경험을 할수록 후속출산계획 비율은 높다는 측면임.
- 이와 같은 돌봄의 직접적 경험의 중요성은 부모가 경험하는 가정 외 돌봄의 질에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부부의 공동체적 기능을 높이는 데도 다각적인 노력을 할 필요를 보여줌. 배우자와의 관계는 가족사회자본이 발생하는 매우 중요한 단위임(Furstenberg & Kaplan, 2004). 또한 돌봄은 본디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돕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진미정, 2022)임을 기억하고 비록 돌봄의 사회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도 동시에 가족의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동일한 무게로 추진될 필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됨. 예를 들어 '아빠육아달인' 프로그램이 아버지의 양육역량, 부부공동양육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이라고 판단됨

2 '돌봄의 의미'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돌봄 지원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돌봄에 대한 광의의 개념(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을 도움, 관계적 속성, 사회공동체의 유지와 구성에 필수적인 가치)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본 연구가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 대상 돌봄의 개념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부여함. 더불어, 앞서 논의한 영유아기 부모의 돌봄경험의 중요성은 돌봄의 편의성 뿐 아니라 돌봄의 질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을 보여줌
-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돌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제공기관마다 서비스 수준과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장민선, 2017)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돌봄에 대한 개념 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대표적으로 아이돌봄지원법 제5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아이돌봄서비스 사무국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개별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한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다소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및 책무)〉

-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동학대신고, 안전사고 예방, 음주 흡연 등 금지 등)

- 즉, 돌봄의 사회화란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함께 나눈다는 의미이지만, 영유아 대상 서비스에서 가족을 대신하는 돌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 돌봄 서비스에서 가족을 대신한다는 것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영유아를 맡고 있는 시간 동안 아동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일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돌봄 서비스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통용되고 돌봄 서비스의 질, 돌봄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 개선 등의 중요한 문제도 논의할 필요성을 보여줌.

〈참 고 문 헌〉

- 백지희(2021). 한 자녀 부모의 후속출산 관련 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지**, 21(6), 65-81.
- 이아영, 이운경(2024). 영유아기 첫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예측 요인 탐색.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장민선(2017).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세종: 서울법제연구원.
- 진미정(2022). 돌봄의 의미와 가족. 진미정, 고선주, 권순범, 남영주, 배희분, 성미애, ... 허정원(편저), **가족과 돌봄**(pp.41-41). 서울: 도서출판하우.
- Furstenberg, F. F., & Kaplan, S. (2004). Social capital and the family. In J. Scott, J. Treas, & M. Richards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ology* (pp. 218-232). Blackwell.
- Pilarz, A. R., & Hill, H. D. (2017). Child-care instability and behavior problems: Does parenting stress mediate the relation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9(5), 1353-1368.
- Press, J., Fagan, J., & Bernd, E. (2006). Child care, work,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low-income mothers. *Journal of Family Issues*, 27(5), 609-632.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 1차 성과평가 및 지수개발



안 현 미 (돌봄정책&젠더연구소장)

▶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 “양육친화도 임신부부 3.92, 유자녀 3.60”으로 성과?

-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0(2022년)에 연이어 2023년 2.0을 대상으로 40개 사업별 실적 모니터링, 15개 추진전략별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과제를 도출한 안현찬 연구위원의 연구 발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자 함
- 먼저, 정책 계획 및 실행에 따른 성과평가는 어려운 일임. 특히, 성과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성과지표 개발)? 흔히 말하는 output(투입 대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outcomes(기대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 정도)에 더 무게가 실리고 어떤 지표로 선정, 보여 줄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함
 - 그래서, 정책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output, outcomes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 개발이 매우 중요함.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니터링 결과발표는 “서울형 업빠프로젝트”의 성과 지표의 적정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은 중간 평가 과정의 하나로 목표 미달성 원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 노력을 통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함
 - 다만, 이 모니터링은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서울형업빠프로젝트”에 국한한다는 점, 그럼에도 시민들은 정책을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로 보거나, 내가 경험한 것을 전체로 인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래서 특정 정책 성과분석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기도 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함
- 토론은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먼저 성과지표 관련한 개선의견과 질적 성과분석 그리고 정책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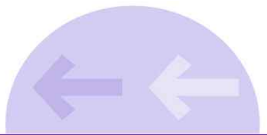
- 먼저, 성과지표 관련하여 너무 지표를 이 프로젝트 사업별로 쪼개다 보니 낮은 결과로 인하여 사업을 강화해야할지 아니면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 등 논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함. 예를 들면, 문화프로젝트 중 가족힐링프로그램 50.5%, 가족 화장실 조성 47.2%, 서울아이발달 지원센터 45.1%, 찾아가는 행복수유 73.9%, 서울형가사서비스 지원 46.6% 등임. 물론 이 중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수혜대상 수”는 매우 중요한데, 현장에서 필요성 보다 낮은 이유와 정책 중요도를 보면 이는 분명 긴급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 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면밀히 한 후 통합 또는 축소 등의 조정이 필요함
 - 이렇듯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지표별 하위 사업 및 측정지표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다음으로 모니터링의 의의는 목표 부진 사업에 대해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책을 찾는 것임. 연구자가 p13~14 분석내용을 토대로 부진 이유 등을 이해할 수 있었음. 그에 따른 방향 또한 적절하고 시사하는 바가 높다고 봄. 다만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 그대로 목표달성을 위해 ‘긴급개선’ 또는 ‘적극적인 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임
 -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정부 소득기준 완화 추세에 맞춰 기준 재조정 등의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한 매우 주요함. 다만 이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따른 성공률 하락 등과 같이 역진적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 가사서비스 지원 등 단순 소득수준만의 문제인지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내년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수요 증가 또한 고려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함(공적 아이돌봄지원사업 효과와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 구분 어려운 점은 더 가중될 것임)
 - 민간 참여(낮은 저조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기초지자체 많은 예산이 주차장 확보 노력(예: 중구 등)에 있는데 민간참여만으로 가능하기 보다는 기초 예산 관련한 분석을 토대로 연계방안(저녁시간만이라도 가족배려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임(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 공간 찾아 참여하는 등)
 - 사업 및 모니터링 운영 개선 제안의 경우, 재조정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 없이 개선 제안을 재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서울장난감 도서관 택배 대여 건수(일부만 하던

것을 서울형엄빠프로젝트로 확대 사업)를 전체 대여 건수로 확대하는 방안, 엄마
아빠택시 이용은 신청자 대비 이용율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데 이용자 수로만
보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함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아동의 발달특성상 문제를 인식하기 전후 인 만3세 이상의
시기 등으로 연령 확대는 반드시 필요함(1세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발달체크로 가능
하고, 이를 연계할 필요는 있음)1).
- 성과평가 결과 정책목표에 따른 “양육 어려움 경감도”는 매우 의미가 있음. 이후 가능
하다면 어려움 정도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도 분석이 가능한지 질문
- 종합적으로 “서울형엄빠프로젝트”의 목표인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시=양육친화도”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정책 유경험자가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의의도 높음. 다만,
정책 무경험자는 단순 소득기준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 재정 효율성,
자치구별 접근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가 이후 진행된다면 좀 더 실질적인 정책개선안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1)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프로그램은 생후 14일부터 6세(72개월)미만까지 총8회 실시하고 있음.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총 12회(구강검진 4회 포함)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보건복지부,
2023). 이 중 발달평가 및 상담은 생후 9개월 이후부터 총 6회를 실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판정 영유아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22년 70%→
'23년 80%(예정) 확대함.

다만 하지만 주양육자와 전문가 인터뷰 결과, 병원에서의 발달검사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주로 일상
생활(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주의깊게 관찰함으로써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임(강복구 연구 중)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김 소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의 가사서비스 사업은 저출생시대 돌봄자(부모)의 육아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임.
- 토론문에서는 서울시 가사서비스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1 서비스 설계 관련 : 서비스 성격과 범위, 이용 횟수의 미스매칭 문제

- 발표문의 이용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가사노동 시간과 스트레스 감소, 가족 돌봄의 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이용자가 기대와 제공되는 가사 범위의 불일치로 ‘기대한 만큼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서비스 설계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음. 서울시의 가사서비스는 청소, 세탁 등 일상 가사를 제공하고 있음. 그에 비해 이용 횟수는 연 10회로 제한적이어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가사일을 지원받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이용자들은 일상 가사보다는 제공 범위 밖의 가사를 기대하는 경향을 보임. 이용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 계기로 ‘바닥, 욕실, 찌든 때 제거’가 가장 높았으며, 대청소 등 추가 서비스에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되더라도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서비스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 가사서비스가 일상 지원 서비스인지, 양육 스트레스가 높거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서비스인지를 명확히 한 후에

그에 맞춰 서비스의 범위와 이용 횟수, 더 나아가 자부담 비용 등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임.

2 ▶ 가사관리사의 일자리 질에 대한 고려

- 서울시에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에 이용 가구를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연 이용 횟수를 6회에서 10회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함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60008>).
- 사업의 공급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 있음. 그에 못지 않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도 필요함.
- 가사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질은 제공인력의 일자리 질 관리를 통해 담보 가능함. 서울시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인증 기관을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가사관리사들이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1:1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가사관리사에게 안정적인 고용과 적절한 임금이 보장되지 못할 여지가 존재함. 또한 가정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가사관리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의 행동에 대한 감시/보호 기제가 부재한 문제도 존재함.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적극 요구됨. 그 밖에도 가사관리사의 경력 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한 투자도 일자리 질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

3 ▶ 서비스 관리·지원 체계 마련

- 서비스 연계 기관 외에 서비스의 질 관리 및 운영 지원을 담당할 기관을 설치할 필요 있음.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활용하거나 별도의 관리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 설치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개편 중심으로 제안해 보고자 함.

-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가사관리사 및 인증기관 대상 교육훈련, 가사관리사의 고충처리와 법률상담, 제공기관 발굴·연계(인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음.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해당 센터에서는 인증제도의 안정화를 위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처럼 공공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증제도의 안정화뿐 아니라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발표문의 이용 실태조사 결과, 가사관리사의 전문성 강화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으며, 사업 운영 개선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지원센터의 기능에 교육훈련 체계 마련과 모니터링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지원센터에서는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초기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숙련도에 따른 단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가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서비스 연계기관(관리자)의 점검과 관리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방문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을 검토해 볼 수 있음.



Memo

메모

Memo

메모

**2024 가족정책 공동심포지엄
'저출생시대, 서울형 가족정책'**

발행일 | 2024.10

발행처 | 서울시가족센터

기획·편집 | 가족서비스2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4길 6

전 화 | 02) 318-0227

팩 스 | 070) 7469-0228

홈페이지 | www.familyseoul.or.kr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서울시가족센터에 있습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본 자료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24

가족정책 공동 심포지엄

저출생시대, 서울형 가족정책